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7815.59 (+606.64)	코스닥 1105.97 (+49.90)
금리 (연이자율) 3.753 (-0.007)	환율 (원/달러) 1505.00 (-1.80)

metro® 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심야영업 완화
국회 테이블 올렸다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성과 배분, 삼성처럼” 삼성전자 8% ↑... 그룹 시총 2000조 ‘훌쩍’

인건비 상승 초비상

‘n% 성과급’ 뉴노멀화 우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막판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에 불어온 ‘n% 성과 배분’ 바람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국내 대기업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어떻게 배분할 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됐다.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자동차와 조선, 정보기술(IT) 등 대기업 노조가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회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약재로 영업이익이 큰폭으로 감소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도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한 성과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지난 20일 사측에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처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성과급 제도 개혁의 목소리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올해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은 최대 6억원 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삼성전자, 파업 한시간 전 ‘합의’ 연봉 1억 DS임직원, 성과급 6억 현대차·HD현대·한화에어로 임단협서 성과급 골자 인상 요구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기로 했다.

OPI는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 재원으로 하며 쟁점이었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중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이처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일정 부분의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한 노조의 요구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직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 4차 교섭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글로벌 탑 3 완성차 업체에 맞는 성과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 업체는 미국 관세와 중동 전쟁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외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반도체 업황의 특수성과 개별 사업부로 분리했지만 자동차나 조선 등 다른 산업에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산업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황이 나빠졌을 때 이를 다시 낮추는 과정에서 노사간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례는 향후 노조 요구사항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기업 및 업종별로 임금체계와 경영환경 등이 모두 상이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사항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제조업 등과 달리 비교적 업력이 짧고 직원들 연령대가 젊은 층에 속한 IT업계는 분위기가 다르다. 카카오는 노사간 성과급 체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 대비 15%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사 이후 첫 분사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의 3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공동고집단은 성과급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30% 기준은 사측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피함에 대한 정당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경영 성과의 분배일 뿐 임금이 아니다”며 노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8개 상장사 시총 합산 2352조 신한투자 “삼정 목표가 55만원으로” 물산·전기 13% 상승, 계열사도 강세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그룹사 시총액 합산액도 20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 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투심이 풀린 영향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 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2352조1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 대비 8.52%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8.51% 급등하면서 시총이 1750조9604억원으로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점과 함께 미국 증시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국제유가 안정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

성전자 목표가를 55만원으로 올리면서 “노사 관련 우려 해소 국면 진입에 따라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정상화를 반영한다”며 “메모리 가격 추가 상승, 장기 계약에 따른 안정적 실적 가시성 확보, 주주환원 강화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상승세와 장밋빛 실적 전망에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지주사성격의 삼성물산은 12.96%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 전자 지분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삼성물산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는 총 118조 6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이 67조 5330억원에 달한다. 사업 부문의 경우 본업을 넘어 원전 관련 수혜 기대감까지 키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재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

MR) 수주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기는 13.46% 급등했다. 삼성전기는 전날(20일)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실리온 커패시터를 공급하는 1조5570억원 규모의 단일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 지난해 매출액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실리온 커패시터 실적 성장 여력이 추가돼 향후 5년 영업이익 연평균성장률(CAGR) 추정치를 기존 53%에서 61%로 올린다”면서 삼성전기 목표주가를 1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4% 상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34% 올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각각 13.78%, 4.24% 올랐다. 삼성E&A는 중동 재건 사업 기대감에 8.23% 상승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시스

유권자 표심잡기... 여야 ‘13일간의 레이스’ 돌입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
李 정부 첫 전국단위 선거 ‘의미’
서울·부산·경남·강원 등 관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부터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정원오·오세훈), 부산(전재수·박형준), 경남(김경수·박완수), 강원(우상호·김진태), 충북(신용환·김영환), 충남(박수현·김태흠)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와 현직 지지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어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6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포함한 ‘전국적 압승’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현장을 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충청권으로 향했다.

정래대 민주당 대표 겸 6·3 지방선거 총괄책임자 대우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경기도 성남에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김영빈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정 대표는 서울을 첫 지원지로 택한

이유로 “오세훈의 서울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수도권을 첫 일정으로 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사실을 알리며 양 후보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대전, 오후에는 충남으로 이동하여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마주쳤다. 장 대표는 지원 유세 중이었으며, 정 대표는 충남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마친 후 시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서예진 기자

김보민·박경수 인턴기자 syj@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엄정 실태 파악·안전 점검 지시”
▲정원오, “안심주택” 전세 사기 피해 청년 만나 “원래 지위 회복 방안 검토” /사진 뉴스시스

▲與 “이스라엘군 나포 韓 활동가 무사 귀환 결정 환영”
▲강훈식, 다음달 초 캐나다 특사 방문...잠수함 수주전 막판 총력

▲조국혁신당, 전북 찾아 “일당 독점정치 깨야... 호남, 與자판기 아냐”
▲국방부, 첨단국방 피치데이 개최...로봇·AI 민간 혁신기술 확산

생산자물가 28년만에 최대폭 상승... '금리인하 신중론' 확산

4월 생산자물가지수 2.5% 상승
석탄·석유제품 등 공산품 가격 급등
금통위 경제전망·점도표 변화 주목

4월 생산자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경계감이 한층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경계와 정책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명분은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생산단계 물가 쇼크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2.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9% 올라 2022년 10월 7.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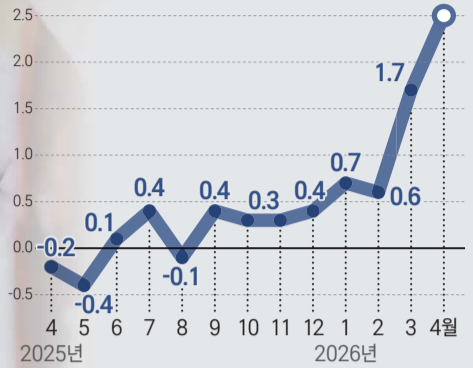
상승세는 공산품이 주도했다. 농림수산물품은 농산물과 수산물에 내려 전월 대비 1.0%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각각 31.9%, 6.3% 오르며 4.4% 상승했다. 서비스도 운송서비스와 금융및보험서비스를 중심으로 0.8% 올랐다.



사진/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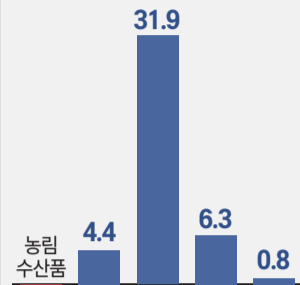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전월대비증감



주요품목 증감률

4월 기준. 단위: %, 전월대비



자료/한국은행

비용 압력이 생산단계 앞쪽에서 강하게 나타난 점도 부담이다.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특히 원재료가 28.5%, 중간재가 4.3% 오르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원재료·중간재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전월 대비 20.7% 올랐고, 폴리에틸렌수지와 폴리프로필렌수지도 각각 33.3%, 32.0% 상승했다. DRAM은 전월 대비 37.8%, 전년 동월 대비 39.0% 급등했다. 석유·화학제품은 비용

물가 압력을 키우는 반면, 반도체 가격 상승은 수출과 성장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적 흐름이다.

◆ 연준도 인하 신중

미국발 변수도 한은의 선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연준이 공개한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2% 목표를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이 비료와 일부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는 진단도 나왔다.

통화정책 기조도 당분간 완화 쪽으로 기울기 어려워 보인다. FOMC 참석자들

은 높은 물가와 중동 분쟁의 지속기간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정책 기조를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물가가 2%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적절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는 한은의 5월 금통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자물가가 급등해 비용 전이 우려가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의 완화 시점이 늦어지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유지돼 다시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 기준금리보다 점도표가 핵심

최근 한은인력에서는 이미 금리인하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인하를 멈추고 인상 가능성까지 고민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성한 전 금통위원도 임기 종료 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 관심은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5월 금통위에서 제시될 경제전망과 점도표 변화에 쏠린다. 생산자물가 급등과 FOMC 의사록의 물가 경계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2월 점도표에 남아 있던 금리인하 가능성이 5월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5월 금통위는 한은이 고유가·고환율의 물가 전이 압력을 얼마나 크게 반영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생산자물가와 연준 의사록이 동시에 물가 경고를 키운 만큼, 금통위원들의 다음 금리 경로도 이전보다 위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통위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재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박차

상반기 내 편입 로드맵 과제 70% 이행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일정 등 살펴

우리 정부가 펀드 국제투자의 기준점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시도한다.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 개편 과제의 70%가량을 상반기 내 완성해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TF(전담반) 회의에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과제 39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1.7%)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으로 꼽

혀 온 계좌 개설 및 결제 절차 등을 개선했다.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투자자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약결제원 시스템을 바꿨다.

또 외국 법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 때 국제표준법인식별번호(LEI) 확인서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이들의 번거로운 공증 부담을 덜었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핵심 과제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에 대한 일정도 살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 달 29일 시범 거래를 거쳐 오는 7월 6일 개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해외 금융회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달 IT 테

스트와 오는 9월 시범운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해외외국환업무추진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됐다. RFI는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야간 거래를 더 용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여러 국가 거래를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허장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제부 운영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 시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홈플러스, 긴급 운영자금 확보 '적신평'

메리츠금융, 신규 대출 사실상 거부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대주주 책임론을 앞세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의 익스프레스 영업장도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약 한 달간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

(브리지론)을 메리츠금융에 요청했다.

4월 급여를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급여일인 이날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홈플러스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개인 이행보증을 서고 추가 담보 방안까지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나 메리츠금융은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만으로는 신규 대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일축했다.

메리츠금융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김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익스프레스 영업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대주주가 통제할 여지가 없으며, 이행 주체인 홈플러스와 김광일 부회장이 개인 보증까지 서며 절박하게 노력하는 상황을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 대출인 만큼 관리인의 이행보증과 복수의 담보장치, 회생절차상 DIP 대출 보호막으로도 상환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정부, 중동 주요국가 60억달러 금융지원

공급망 회복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 강조

정부가 일부 중동 국가에 총 6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 제품·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서아시아 지역 내 주요 발주처가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들 국가의 유동성 개선을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TF(전담반)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선금융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0억 달러씩 맡아 도합 6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다자개발은행(MDB) 등이 연계된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030년까지 5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인도·아세안·몽골 등과의 협상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춘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추진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절차에서도 기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DS 특별성과급 급한 불 껐지만... DX·비메모리 불만은 숙제

OPI 유지하고 DS 특별성과급 도입 사업성과 10.5% 재원으로 마련 DS 40% 공동·60% 사업부별 배분 찬반투표·내년 적용방식 변수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이란 파국은 피했다. 다만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적자 사업부 배분 유예 등을 둘러싸고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조직 내부 갈등과 성과급 재원 부담 등은 향후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자며 내부 결속과 합의안 추진을 당부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 43분경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DS 부문에 한해 특별경영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당장의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잠정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수용한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유예 문제 역시 내년 이후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부터)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난 점은 향후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DS(반도체) 부문 성과급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반면 스마트폰·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DS 내부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60%를 반도체 부문내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 안팎이다. 이 경우 반도체 특별 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5000억원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 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부 간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다"며 "DS 내 메모리사업부는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반면 비메모리사업부에서는 최소 1억6000만원 수준의 성과급도 부족하다며 부결 의견을 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총파업을 막는 절충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부 갈등 관리와 산업 경쟁력 회복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측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내부 분위기 수습에 적극 나섰다.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사내 담화문에서 "비록 협상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회사를 위한 마음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전 부회장은 노조측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 낸 노조와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파업 털고 30만전자 '눈앞' AI 메모리로 50만전자 시동

증권가, 목표가 최고 57만원 제시 AI 추론 확산에 메모리 호황 장기화

"경기민감주가 아닌 구조적 성장주로 재평가해야 한다."(노무라)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골드만삭스)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지난 20일 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증권가에선 '50만전자'를 내거는 등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분위기다. 파업 이슈가 해소됐고, 글로벌 메모리 호황이 2~3년 더 지속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강력한 엔진은 한국증시 시가총액 7000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이제 코스피는 '1만피(코스피 1만)'라는 미담의 고지를 향해 역사적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8.51% 급등한 29만9500원에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올렸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5월 기준 서버 및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량 성장률이 각각 22.3%와 41.5%로 높았던 기저에도 불구하고, 한 달

사이(기존 22.1%와 39.1%에 비해) 추가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사양 스마트폰 감소로 오히려 모바일 디램(DRAM) 평균 탑재량이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엔비디아 베라(vera)의 본격적 저전력 디램(LPDDR·SOCAMM) 수요 잠식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45만원으로 제시했다. 류형근 책임연구원은 "파업 이슈를 제외하면 업황 기초 체력이 매우 견고하며, 특히 AI 추론의 확산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었다"며 "수요와 공급의 성격 변화가 이끄는 사이클의 축소와 성과급 구조 변화, 그리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가져올 설비투자 규율의 강화가 산업 가치 재평가를 지속해서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증권 김동원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54% 상향한 57만원으로 제시하며, 삼성전자를 섹터 내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김센터장은 "파업 리스크로 인해 경쟁사 대비 주가가 눌러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 해소 시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오늘과 내일을 잇고
일상과 기술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LX의 모든 연결,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

있다 - 있다
사람을 향한 미래

LX인터내셔널
LX판토스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 MMA
LX클러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심야영업 완화’ 국회 테이블 올랐다

15년 전 오프라인 중심 맞춰진 규제 현재 소비 중심축 온라인으로 이동 온라인 배송 규제완화도 주요 쟁점 법안 통과 시도심 물류거점 역할 소상공인 단체 반발... “논의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규제를 둘러싼 유통업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국회 테이블 위에 올랐다.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국회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새벽배송 시장을 둘러싼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는 분위기다.

2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휴업 규제 자율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된다. 해당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됐지만, 소비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현재 유통 환경

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의무휴업 규제와 심야배송 제한 완화 여부다. 먼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매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삭제하고, 지역 실정

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과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휴업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부산·서울 서초·동대문 등에서는 대형마트 매출이 최대 7.9% 증가한 반면, 우려와 달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 골목상권 매출은 15.39%, 서울 전통시장 매출은 12.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도 주요 쟁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시간 대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상품 포장·반출·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장악한 새벽배송 시장에 대해 대형마트에도 심야 배송 경쟁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발 더 나아가 김성원 의원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주요 대형마트 점포는 심야 시간대 상품 선별(피킹)과 포장·출고 작업을 수행하는 도심 물류 거점 역할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시장을 전쟁터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5년 전 오프라인 중심 유통 환경에 맞춰진 규제가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온·오프라인 간 역할 차이가 심각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무휴업일 완화와 심야 배송 허용은 단순히 마트의 이익을 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유통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靑 “삼성 노사 한발 양보해 잠정합의 이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워낙 커 정부, 합리적 방향 조정 적극 지원”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20일)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노사가 한발 양보해서 잠정합의안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노사 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이 문제는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있어 갈등이 광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한 바 있다”며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의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선 “영업에 대한 당 기준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AIDC 중속엔진 단기대응 ‘한계’ 조선사, 점진적 증설 서두른다

HD현대중, 전용 생산시설 구축 검토 한화엔진, 오는 8~9월 공장 완공 목표 STX엔진, 자체기술 기반 시장 겨냥

AI 데이터센터용 중속엔진 수요가 조선·엔진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엔진사들의 단기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4행정 중속엔진 생산능력 상당 부분이 이미 선박용 물량에 묶여 있는 만큼, 시장 확대의 관건은 별도 생산능력과 부품망, 테스트 베드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21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연간 중속엔진 생산능력 2941MW, 약 400만BHP의 70% 이상을 선박용 발전엔진에 할애하고 있다. 자회사HD현대엔진도 생산능력 전부를 선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선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 한 그룹 내 선박 물량을 우선 소화해야 하는 구조다.

글로벌 엔진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핀란드바르질라에 데이터센터용 엔진 수요가 생산능력을 웃돌자 오는 2028년 초까지 생산능력을 35%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확보 가능한 생산 슬롯이 엔진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다.

중속엔진은 선박 추진·발전용은 물론 육상 발전설비에도 활용되는 4행정 엔진이다. 기존에도 육상 발전원으로 쓰여왔지만, 최근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맞물리며 성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오는 2030년 약 945TWh로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늘고, 연평균 증가율도 약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엔진 3사는 각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데이터센터용 10~20MW급 가스엔진 전용 생산시설 구축



HD현대중공업의 육상 발전용 힘센엔진(HIM SEN). /HD현대

등 증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연 1GW 규모 생산능력을 확보할 경우 오는 2028년 매출이 1조원가량 늘고, 기업가치도 약 4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엔진은 오는 8~9월 완공을 목표로 900MW 규모의 4행정 중속엔진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 당초 선박용 위주로 기획됐지만,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라 일부 물량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STX엔진은 자체 기술 기반 중속엔진과 신제품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출시한 ‘16V32/40 하이 다이내믹’ 엔진은 10초 이내 블랙스타트와 고속엔진 수준의 과도응답 성능을 갖춰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투자비·운영비·설치 공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생산능력 확충은 조립라인 증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엔진을 제때 시험·인도하려면 터보차저, 전자제어 계통 등 핵심 부품 공급망과 테스트베드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실제 병목은 조립능력보다 부품 조달과 시험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존 선박용 물량을 무리하게 줄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수요 범위 안에서 점진적인 증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대한상의 “韓 제조업, 시장 확대보다 경쟁력 강화 필요”

韓, 세계 제조업 교역 99% 품목 수 기준 96% 시장에 수출

한국 제조업이 전 세계 제조업 시장 대부분에 진출했지만 개별 품목 점유율은 낮아지면서 수출 전략의 무게중심을 외연 확대에서 경쟁력 강화로 옮겨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 구조 변화와 무역 특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시장까지 기준 세계 제조업 교역의 99%, 품목 수 기준 96%에 해당하는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독립 관세 구역을 포함하면 진출 국가는 약 220개국에 이른다.

수출 대상국과 품목 범위가 이미 넓어진 만큼 앞으로는 신규 시장 확대보다 주력 품목의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실제 한국 제조업의 개별 품목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하락해 2023년 3.5%까지

낮아졌다.

주력 수출 품목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07년과 2023년 상위 50개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장비 부품, 집적회로 부품, 전기차 포함 승용차, 태양광셀·LED,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이차전지 소재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스티렌, 테레프탈산, PET 등 범용 석유화학 소재와 디젤 승용차·화물차, 컬러TV 수신기, 컴퓨터 모니터 등은 상위권에서 빠졌다.

수출 지역별 비중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최대 수출국이지만 전체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21년 27.0%에서 2023년 20.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 비중은 14.0%에서 17.7%로 상승했다. 베트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3위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2020년대 들어 대만도 주요 수출 시장에 포함됐다.

첨단 품목의 수입 의존도는 과제로 지목됐다. 친환경차와 바이오의약품은 글

로벌 성장성과 무역특화지수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와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및 LED 등은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빠르게 늘었다. 첨단산업 성장 과정에서 핵심 장비·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가희 상의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특화지수 분포 변화는 국가 간 경쟁력 변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일부 첨단산업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어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술·제품 경쟁력 확보와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 강화, 경제 불복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답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SK 선대회장 | 최 종 현

- 1979 | 2차 오일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산 5만 배럴 원유 공급 확보
- 1984 | 무자원 산유국 첫 발견, 북예멘 마리브 광구 유전 발견
- 1998 | 아시아 지역 새로운 도전, 베트남 15-1광구 석유 개발 시작
- 2010 | 페루 LNG 가스생산, 수송, 수출 수직계열화 완성
- 2014 | 안정적인 LNG 확보를 위한 미국 우드포드 가스전 지분 투자
- 2018 | 독자 운영 및 자체 기술로 남중국해 17/03 광구 원유 발견 성공
- 2022 | 동남아 자원 거점 확대, 말레이시아 SK427 광구 운영권 확보
- 2025 | 자원 영토 확장, 인도네시아 3개 탐사 광구 지분 확보
- 2026 | 호주 바로사 가스전 LNG 첫 도입, 20년간 안정적 공급

작은 가능성에도
수천 미터를 파 내려가고
먼 미래를 위한 일일지라도
주저 없이 바다를 건넌습니다

지난 6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의 답을 찾아갑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李, 5·18 폄하 반복에 “국가폭력범죄 미화행위 강력 응징”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 엄단
공소시효 배제하는 입법 필요”
역사왜곡 발본색원 의지 담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빈발하는 5·18 폄하하는 강력 응징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마케팅에 대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인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20일)에는 2019년 무신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속진성 양말’ 광고에 대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고 문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사용돼, 당시에도 무신사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역사왜곡, 회화화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세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정원오 “이제 서울시만 바꾸면 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출정식 가져
“성수동처럼 지역경제 확산” 약속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3선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새로운 서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성동구에서의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펼쳐 살기 좋은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정식에는 이해식·박성준·서영교·전현희·고민정 의원 등 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약 300명의 지지자가 함께했다.

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실력을 교체하는 선거”라며 “이제 서울시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이태원 참사 등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며칠 전엔 삼성역 역사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런데도)

현 시장 오세훈 후보는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안전한 서울을 원하시면 정원오에 투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뽑아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선거”라며 “오세훈 후보가 일을 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동구를 언급하면서 “(성동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성수동에선 거의 공실을 찾을 수 없다”며 “지역경제를 성동구 성수동처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성동구 같은 서울시를 원하시면 투표로 바꿔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출정식 후 삼성역 공사 현장 방문, 고속터미널역 지역유세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오세훈 “독주 정부에 경고장 보내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승민 전 의원과 선거 유세 시작
GTX 공사 논란에 “진실 밝혀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주택가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출정식을 하고 유세를 시작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 골목에서 출정대 시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곳은 오 후보가 유년시절을 보낸 동네이기도 하다.

오 후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변화가 이곳 강북구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끼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오만함이 주저 정책을 넘어서 대한민국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미 독재의 길로 들어선 정부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매서운 경고장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유 전 의원이 일정에 함께한 데 대해 “정치적 의미를 담기보다는 모든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경제를 챙기기 위해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선배와 함께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철근 누락 은폐’ 논란이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빚속에서 벗짚에 생양불을 그어 대도 불이 붙지 않는다”며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고, 어떠한 오해 없이 서울시가 초기에 완벽하게 원리-원칙대로 이 사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며 출정 대시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을 처리했다는 것을 이미 밝힌 이상 더 이상 민주당의 전략에 밀려들지 않겠다”고 했다.

지도부와 일정을 함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 메시지로, 제 브랜드로, 제 정책으로 서울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대정부 투쟁에 전력을 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청년이 체감하는 대학도시 성북 만들 것”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④ 홍희진
진보당 성북구청장 후보

서울 자치구 중 최연소 구청장 후보
‘상생학사’로 대학생 주거 부담 해소

홍희진 진보당 성북구청장 후보(1994년생)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최연소 구청장 후보자다. 홍 후보는 성신여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재학 중 교비를 횡령한 총장을 상대로 학우들과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다. 결국 성신여대에 총장직선제가 도입됐다.

홍 후보는 진보당 인권위원장, 김재연 대통령 선거 후보 ‘2030여성 선대위’ 위원 등 진보 정당 정치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고 진보당 답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공동 단장을 맡아 답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홍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차별없는 모두의 성북’이다. 홍 후보는 “대학생, 청년, 장애인, 재개발 지역 세입자, 문화예술인, 여성, 성소수자 등 그 누구도 밀려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성북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지역 내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8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고 재학생 수는 7만여명에 달한다. 홍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성북구 345명의 대학생을 직접 만났다.

홍 후보는 “대학이 이렇게나 많은 ‘대학도시’ 성북에 대해 정작 대학생,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학가 인근 비싼 원룸 월세, 면접 서류를 낸 10곳 모두 ‘땀’ 당하는 취업난, 알바비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삼각갑에 컵라면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 같은 세대로서 공감되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

홍희진 후보 프로필
기호 5번·1994년생
현)진보당 공동대표
현)진보당 답페이크 성범죄 대응TF 공동단장
전)성신여대 30대 부총

학생회장
전)진보당 인권위원장
전)김재연 대통령 선거 후보 ‘2030여성 선대위’ 위원
전)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청년선대위 ‘다시만들세계2030위원회’ 부위원장
전)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나에게 지방선거란? ‘변화의 시작’이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학생, 청년의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성북구에 31세 구청장 후보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가 제1공약은 민간·지자체와 대학이 힘을 합쳐 만든 ‘성북형 상생학사’로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홍 후보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원룸 월세인데도 60만원, 70만원은 우습게 넘어가고 심지어 11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는 학생들을 만났다”며 “그리고 이런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통학시간에 왕복 4시간을 쓰고 있다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나 비싼 대학가 월세가 대학을 다니며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대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성동구에서 이미 진행한 사례가 있는 상생학사를 만들어 대학생들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약을 꼭 이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창립 58주년

동서식품

기분 좋은 행복이 이 한 잔에 가득

우리가 나누어 온
수많은 '행복 한 잔'들이 모여
기분 좋은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행복을 전하는 따뜻함 그대로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이 행복해지도록

Maxim.
커피라는 행복



“부패한 이너서클 차단…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검토
‘생산적 금융’ 전환정책의 연장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 ‘이너서클’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장 3연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없애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비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9년 이상 연임하면 CEO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방향성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론”이라며 “제도 개선을 해왔

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되고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

상 겹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 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투기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려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포지티브식으로 ‘아러러아러러한 경우는 이게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이 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사, 대부업체 등의 부실채권(NPL)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거나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회수해 수익을 내는 금융업이다.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자본금 30억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l115@metroseoul.co.kr



metro

스타벅스 ‘조롱 마케팅’… 제휴 카드사 불똥

삼성·우리·신한 스타벅스와 제휴 무신사도, 삼성·하나카드와 협약 “이미 계약 끝내… 파기는 어려워 논란 확산, 프로모션 축소 가능성”

스타벅스에 이어 무신사까지 ‘조롱 마케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들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도 불똥이 튀고 있다. 대형 유통 기업들의 브랜드 리스크가 카드 상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면서, 중성 고객 확보를 노렸던 카드사들의 선택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무신사에서 5·18 민주항쟁, 고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는 듯한 마케팅 문구 논란으로 고객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이들과 제휴한 카드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티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5월 18일을 ‘탱크데이’라 칭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무신사는 7년 전 공개했던 양말 광고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

이 일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카드사 여러 곳과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삼성카드와 우리카드가 스타벅스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한카드와도 제휴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맺으며 카드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도 대표적인 카드사 제휴 유통 기업 중 하나다. 무신사는 지난달 삼성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휴카드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무신사와 손잡고 이달 ‘하나나라사랑 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페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카드업계는 잇달은 유통 기업의 리스크가 제휴카드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무신사의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불매에 동참한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하고 싶다면 그냥 안 가면 된다” 등의 글과 함께 스

타벅스 티블러를 버리거나 파괴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무신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전 트위터, X)에서 무신사 광고를 게시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라며 “돈이 마구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는 이미 체결된 PLCC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더 고심이 깊다. 카드사가 먼저 유통사를 상대로 PLCC 계약을 파기한 선례가 없을 뿐더러, 계약 파기 조건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 논란만으로 조치가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무협약을 다 맺어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불매운동과 함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프로모션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고객 상황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0.31%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상승 부추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한 이후 인기 지역 위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며 호가가 뛰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상승률로는 전주(0.28%)보다 0.03%포인트(p) 높아져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밝힌 직후인 1월 넷째주(0.31%)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로 앞두고 최근 3주간 0.14~0.15% 수준에서 회복해오다 전주 0.28%로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이번 주에 옴폭을 더 키웠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수요가 집중된 정주여건 양호·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이 흔해지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통계 공표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성북구(0.54%→0.49%)와 종로구(0.36%→0.32%)가 이번 주에는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 상승률의 경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뉴시스

장기보험 부지급률 1.3%… 車보험의 3배

질병·상해 등 상품구조에서 차이
삼성·현대 등 대형사 업계 평균수준
신한EZ 3.11%, 손보사 중 가장 높아

보험금 지급 체감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주목받고 있다. 민원 건수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결과라면, 부지급률은 보험금을 청구한 뒤 실제 지급이 거절된 비율이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과정의 마찰을 살펴볼 수 있는 보조 지표로 꼽힌다.

21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평균 부지급률은 1.3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부지급률은 0.45%였다. 단순 비교하면 장기보험 부지급률이 자동차보험의 약 3배 수준인 셈이다.

부지급률은 보험금 청구건수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의 비율이다. 다만 해당 공시는 전체 보유계약이 아니라 직전 3개 회계연도 신계약 중 해당 반기에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고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보험사별 수치를 단순히 전체 계약의 보험금 지급 성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장기보험의 부지급률이 자동차보험보다 높은 것은 상품 구조의 차이가 크다. 장기보험은 질병·상해·건강보험 등 약관 해석과 지급 요건 판단이 복잡한 상품이 많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과 손해 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정형화돼 있어 부지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험사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형 손보사의 장기보험 부지급률은 삼성화재 1.30%, 현대해상 1.28%, KB손해보험 1.33%, DB손해보험 1.33%, 메리츠화재 1.39% 등으로 업계 평균 인덱스에 분포했다.

일부 중소·디지털 손보사는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신한EZ손해보험의 장기보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금 부지급률 관련 이미지.

험 부지급률은 3.11%로 공시 손보사 중 가장 높았다. 라이온손보는 1.96%, 하나손보는 1.83%, AXA손보는 1.72%를 기록했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 장기보험 업계 평균 청구 이후 해지비용은 0.19%였다. 자동차보험은 0.01%에 그쳤다. 청구 이후 해지비용은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청구 이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등이 발생한 비율이다. 보험금 청구가 단순 지급 심사에 그치지 않고 계약 해지나 민원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보험사별로는 NH농협손보 1.35%, 신한EZ손보 1.21%, 하나손보 1.06% 등 일부 보험사가 평균을 웃돌았다. 대형 손보사는 삼성화재 0.15%, 현대해상 0.16%, KB손보 0.19%, DB손보 0.19%, 메리츠화재 0.18% 수준이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가입 시점에 이해한 보장 범위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적용되는 약관 판단이 다를 때 발생한다.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소비자는 가입 당시 설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간극이 반복되면 부지급은 단순 심사 결과가 아니라 민원과 분쟁으로 이어진다.

/김주형 기자 gh471@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투자의 시대 고객의 성장과 함께하는 신한 新韓

신한투자증권 신한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배터리소재업계, 中 의존도 낮춘다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제품 주력

포스코퓨처엠 소재개발 범위 확대
에코프로 리튬메탈 음극재 등 공개
엘앤에프 LFP 양극재 양산 예정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존 소재 공급망에서 벗어나 차세대 소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기술 내재화와 제품군 다변화에 속도를 낸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로 넓히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초 팩토리얼에 투자를 단행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팩토리얼은 다수 소재사에서 받은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을 테스트했고, 포스코퓨처엠 소재의 출력 특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극재 분야에서도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실리콘 음극재 기술 확보에 나섰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을 4배 이상 높이고 충전 속도를 개선할 수 있어 차세대 음극재로 꼽힌다. 실리콘 혼합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은 조건에서도 충·방전 1000회 이후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성능을 확인했으며 실리콘 나노화와 탄소 복합화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피 팽창도 완화했다.

에코프로도 전고체 배터리 소재와 차세대 양극재 제품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고체용 양극재와 고체전해질, 리튬메탈 음극재를 비롯해 리튬망간리치(LMR), 나트륨이온 배터리용 양극재,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양극소재까지 공개하며 차세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리튬메탈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히며, 전고체에 국한되지 않고 차세대 배터리 전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엘앤에프는 중국 업체 비중이 높은 LFP 양극재 분야에서 국내 생산 기반과 자체 기술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LFP 양극재 전담 자회사 엘앤에프플러스 공장을 준공했으며, 올해 3분기 말부터 초기 연산 3만톤 규모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북미 ESS 수요에 대응해 2027년 상반기까지 연산 6만톤 체제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엘앤에프는 차세대 무전구체 공법(Fe2O3·산화철)과 자체 인산철 기술도 개발 중이다. 전구체 공정을 줄이고 핵심 원료 기술을 내재화하면 제조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모두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소재 기업들의 전략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며 "실리콘 음극재와 리튬메탈, 비중국 LFP처럼 기존 중국 중심 공급망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소재를 확보한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1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팝업스토어에서 고객이 위시타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LG전자

LG전자, 동남아 주요국 '집들이' 캠페인

K-컬처 기반 프리미엄 체험 마케팅

LG전자가 K-컬처 열풍이 거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고유의 '집들이' 콘셉트를 앞세운 팝업스토어 캠페인을 펼친다.

LG전자는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집들이 by LG'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1일 밝혔다.

회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신사업 매출 비중을 올해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동남아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컬처를 앞세운 프리미엄 체험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첫 팝업은 지난 19일 베트남 호치민의 브랜드 경험 공간 '어나더사이공(Another Saigon)'에서 문을 열었다. 현관·주방·거실·드레스룸 등 실제 주거 공간으로

꾸민 전시장에서 러닝·뷰티·소셜 등 현지 관심도가 높은 K-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해 LG전자 AI 가전 라인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간별로는 주방에 크래프트 아이스·각얼음·조각얼음 등 다양한 형태의 얼음을 제공하는 얼음정수기방장고를 배치해 한국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거실에서는 에어컨·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LG 스탠바이미 2'를 활용한 홈트레이닝 체험이 가능하다. 드레스룸에는 세탁물의 무게·오염도·재질을 AI가 분석해 맞춤 세탁조건을 수행하는 위시타워와 스타일러를 뒀다.

LG전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잇달아 진행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체험을 디지털로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D현대, 글로벌 소형모듈원전 시장 정조준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 공급 합의
상업용 원전 모델 등 협력 범위 확대

HD현대 미국 테라파워와 차세대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 공급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원자로 용기 수주에 이어 주기기 핵심 설비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차세대 원전 상업화 공급망 내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HD현대 미국에서 조선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주기기 핵심 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제조 역량과 원전 기자재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상업화 공급망 구축에 참여한다. 이번 합의는 양사가 지난해 3월 체결한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HD현대 미국에서 원자력 혁신 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공급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HD현대중공업 원장식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 테라파워 크리스 르베크(Chris Levesque) 최고경영자. /HD현대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의 연장선이다. 양사는 지난 1년간 나트륨 원자로의 제조타당성과 가격 경쟁력, 인도 일정 등을 공동으로 검토해왔다.

앞서 HD현대 미국은 지난 2024년 12월 테라파워로부터 원통형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현재 제작을 진행 중이다. HD현대 미국은 해당 실증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상업용 원전 모델까지 협력 범

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트륨 원자로는 테라파워가 개발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반 원전이다. HD현대 미국은 이를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원장식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소형모듈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동 연구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 설비를 적기에 공급하고 연속 생산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 미국은 이날 테라파워, 현대건설과 함께 차세대 나트륨 원자로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 미국은 현대건설과 함께 설계·조달·시공 수행 및 주요 기자재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응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현대차그룹,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 제안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

수소브랜드 'HTWO' 중심 부스 마련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수소 생태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알렸다.

현대차그룹은 19~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은 모빌리티, 생산, 인프라, 규제 등 수소 관련 주요 안건과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수소 산업 박람회다.

이번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에는 100여개국 정부 관계자 및 500여개 참가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한국관에 수소 브랜드이자 비즈니스 플랫폼인 'HTWO'를 중심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목업(실물



마크 프레이몰러 현대차 유럽에너지&수소 법인장이 20일(현지시간)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6 행사로 열린 'H2 기술 인사이트'에서 현대차그룹 HTWO 브랜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모형), 디올 뉴 넥쏘 등을 전시했다.

디올 뉴 넥쏘는 최고 출력 150Kw모터가 탑재돼 0km/h부터 100km/h까지 7.8초의 가속 성능을 갖췄고, 국내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2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회담 부문에도 참여해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 구축을 논의했고, 솔루션 활성화 방안도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솔루션, 美 AMPC 유동화... 재무개선 속도낸다

지난해 AMPC 2000억 규모 매각

한화솔루션이 미국 태양광 생산기지에서 발생한 AMPC(첨단제조세액공제)를 유동화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수령한 AMPC 가운데 약 2000억원(1억3000만달러) 규모를 최근 매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에도 AMPC 조기 현금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제조한 태양광 제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달튼 공장과 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며 와트(W)당 7센트의 AMPC를 받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AMPC를 수령했다. 이번 거래를 포함해 현재까지 매각한 AMPC는 1조1300억원(8억1200만달러)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말까지 2025년 AMPC 잔여분 매각 계약을 위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카터스빌 공장 완공이 예정된 올해 AMPC 수령액은 약 1조원(6억7500만달러)으로 예상된다. 생산 확대와 함께 AMPC 확보 규모도 늘어나면서 북미 사업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동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민 한화솔루션 재무실장은 "앞으로도 AMPC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SK온, 美 테네시 공장 단독 소유·운영

포드 합작체제 정리... 차입금 부담 완화

SK온이 포드와의 미국 배터리 합작 체제를 정리하고 테네시 공장을 단독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북미 배터리 투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차입금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 거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편에 나선 것이다.

SK온은 기존 블루오벌SK 테네시 공

장을 'SK온 테네시(SK On Tennessee)'로 전환하고 단독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편에 따라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단독으로 소유·운영한다. 기존 블루오벌SK 산하 캔터키 2개 공장은 포드가 소유·운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SK온은 이번 합작법인 체제 종결로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PRIDE RC

고객을 향해 뛰고
고객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위해 성장하는

우리는 고객님의
자부심
삼성화재
PRIDE RC 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힘**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힘**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정직하게 일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힘**
늘 고객을 생각하며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PRIDE RC

6대 핵심가치 기준으로 선발된
삼성화재가 공식 인증하는
대표 RC(보험설계사)입니다.

2030년까지 지방 5곳 이상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키운다

중기부, 창업도시 프로젝트 발표
대전·대구·광주·울산 업무협약
4대 과기원 중심 기술창업 거점 구축

AI·바이오 등 지역별 전략 가동
인재 발굴부터 투자·정착까지 연계
韓 "전국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정부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내 창업도시 5곳 이상을 만든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동참한다.

중기부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과 '창업도시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DGIST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의 후속 행사로, 지역별 특성 및 강점을 반영한 창업 도시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DG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중기부·4대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왼쪽부터)유독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서남교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인재 육성, 사업화, 투자, 인프라 같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구·광주·대전·울산 4개 도시의 특화 전략을 더했다.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개 지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투자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탄생하고 기술인재 양성부터 창업·성장·정착까지 이어지

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구는 '인공지능(AI)·로봇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첨단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DGIST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로봇·모빌리티, 의료·바이오, AI·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딥테크 실증 기반(테스트베드)을 마련한다.

대전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과 3대 분야(우주·방산, AI·로봇, 바이오)에 중점을 둔 딥테크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광주는 GIST의 연구 인력이 중심이 돼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AI·반도체 분야 육성에 힘을 쏟는다. 인근 전남 나주시의 한국에너지공과대, 한국전력 등과 연계한 광역형 창업생태계도 구축한다.

울산의 경우 UNIST와 지역 주력대기업의 산업단지 기반을 이용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3대 주력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실증 특화 도시로 발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4개 지방정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원 중심의 기술 인재 발굴 뿐만 아니라 우수 스타트업의 지역 유입 촉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투자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넘어 지방에서도 기술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S에코에너지

통신케이블 UL 인증 美 데이터센터 정조준

LS에코에너지가 전력 케이블에 이어 데이터센터·스마트빌딩용 통신 케이블까지 미국 UL 인증을 확보하며 북미 데이터센터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CV의 통신 케이블이 미국 UL 화재 안전인증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 제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스마트빌딩의 출입 통제, CCTV, 경보장치 등에 적용되는 신호 전송 케이블이다.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빌딩 구축과 보안 설비 투자가 늘면서 관련 통신 인프라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동양

부천 AI 허브 착공 인프라 사업 확대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AI 특화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섰다.

동양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천삼정 AI 허브 센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양이 사업주체를 맡고 LG CNS와 디씨플랫폼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시공은 DL건설이 담당한다. 동양은 AI 데이터센터 개발의 핵심 축인 DBO(설계·구축·운영) 사업자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개발 기획부터 구축 관리, 운영 안정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대구·경북지역서 중소 혁신제품 발굴

공영홈쇼핑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 혁신 제품 추가 발굴에 나섰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일 대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대구·경북 혁신기업 제품 코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43개 혁신기업이 참여했다.

'코칭·상담회'는 유통 전문가가 지역을 직접 찾아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제품별 맞춤 상담을 실시하는 공영홈쇼핑의 대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전 지역에서 17회 개최하고 약 20억 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기업별 전문가 상담, 품질 관리 교육, 정부 정책사업 소개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기자

중기연 "하도급 대금 지급상한 60일서 30일로 줄여야"

중소 유동성 제고 보고서 발표
수·위탁 거래 평균 지급기간 27.4일
대기업 22.5일·중소 30.7일로 격차
"50년 전 결제기준, 현실과 괴리"

중소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50년 넘게 '60일'로 묶여 있는 수·위탁거래 판매 대금 지급 기한 상한을 '30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하도급 대금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다수 발의됐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

기업 대금 지급 기한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체 수·위탁 거래의 평균 판매 대금 지급 기간은 27.4일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2.5일, 중견기업 28.3일, 중소기업 30.7일로 조사됐다.

중기연구원은 지난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수·위탁 판매 대금 지급기한(60일)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정도, 대금 지급기간 분석, 해외사례, 효과성을 분석했다.

중기연구원은 "1975년 당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모기업의 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납기를 60일 범위 안에서 최단 기간으로 한정했는데 지금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

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정 당시 결제 여건을 고려한 기한 설정임에도 존치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이 동떨어진 적합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의 사례도 언급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 간 거래(B2B)의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정한 지연 지급지침을 운영 중이다. 예외적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도 채권자에게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신속지급법(Prompt Payment Act)에 따라 공공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에 대해 30일 내에 대금을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기업의 경우 이보다 짧은 15

일 이내 대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연구원은 수·위탁 거래 대금지급 기한 단축이 산업 전반에서 순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것이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인 대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의 편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전체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에 직면한 이때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포스코그룹과 철강·이차전지 공급망 상생 강화

포스코·퓨처엠 등 계열사 동참
협력 중소기업 네트워크론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포스코그룹과 손잡고 철강, 이차전지 공급망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진공은 21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엔투비, 포스코HY클린메탈과 함께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 주요 계열사가 공동 참여해 수주 중소기업



21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열린 중진공과 포스코 그룹 4개 계열사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윤진수 엔투비 설비구매1실장, 이승기 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종혁 포스코퓨처엠 구매계약실 설비자재구매그룹장, 박지윤 포스코HY클린 메탈 경영지원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력 중소기업

업 대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우수기업 추천 및 정책사업 연계 ▲산업현장 정보교류 확대 ▲공급망 경쟁

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올해 사업 3년차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에는 현재 약 90개의 발주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기업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동시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 협약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대기업 그룹 단위 참여를 확대해 수주 중소기업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국내 철강·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포스코그룹과 체결한 이번 협약은 대·중소 상생협력의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 '인프라 선점 집중' vs 카카오 '카톡 내 AI 환경 연결'

IT업계 'AI 사업전략'

네이버, 1분기 연구개발비 6019억 AI 에이전트 중심 구조전환 본격화
카카오, 연결형 AI 플랫폼 전략 핵심 하반기 '카나나 인 카카오톡' 예고

국내 양대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사업 전략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네이버는 자체 AI 인프라와 기술 내재화에 집중할 '선투 자형 AX(인공지능 전환)'를,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 접점과 효율 중심의 '경량형 AX'를 택하며 AI 전략이 선명해진 것.

21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구 개발과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자체 기술·인프라 중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와 외부 생태계 연계에 무게를 두며 상대적으로 효율 중심의 접근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네이버 "AI는 기능 아닌 플랫폼 구조 재편"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연구



개발비로 약 6019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규모다. 매출 대비 R&D 비중 역시 18.0%에서 18.6%로 확대됐다.

특히 별도 기준 R&D비는 약 2458억원으로 1년 만에 52.5% 급증했다. 네이버가 단순 서비스 개선을 넘어 AI 자체 기술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네이버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총 4652건이다. 이 가운데 특히 3174건은 검색·플랫폼·광고·쇼핑·AI·인프라 영역에 집중돼 있다. AI를 개별 서비스가 아닌 플랫폼 구조 전반에 녹여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은 더욱 두드러진다.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자본지출

(CapEx)은 4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4% 증가했다. 이 중 서버 및 비품 투자가 3936억원으로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AI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GPU·CPU 기반 인프라 선점 전략으로 해석한다. 실제 네이버는 춘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AI 에이전트 중심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네이버는 지난 2월 네이버플러스스토어 앱에 AI 쇼핑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키워드 검색 중심 쇼핑에서 대화형 추천·탐색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검색·구매·리뷰 데이터를 통합 활용해 개인 맞춤형 추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브라우저 기반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AI, 플레이스 토탈 검색, LLM 기반 데브옵스 에이전트, AI 취약점 탐지 등도 핵심 연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하반기 예정된 AI 브리핑 광고와 생성형 AI 광고 수익화 전략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R&D·Cap

Ex 확대가 단기 비용 증가보다 검색·커머스·광고 생태계 재편을 위한 선행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 카카오 "카톡 기반 AI 점점 확대"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효율 중심 AI 전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연구 개발비는 약 3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CapEx 역시 1176억원으로 15.2% 줄었다.

다만 별도 기준 연구개발비는 약 1568억원으로 매출 대비 비중이 22.4%에 달한다. 본사 차원의 AI 집중도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현재 카카오의 AI 조직은 프로젝트·테크·AI 스튜디오 체제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AI 스튜디오는 MoE 기반 모델 연구와 이미지·영상 생성, 개인화 에이전트, 음성인식·합성, 추론 모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카카오 전략의 핵심은 자체 초대형 인프라 경쟁보다 서비스 점점 확대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올해 1분기 연구개발 성과에는 에이전트 AI 구현을 위한 '카나나-2' 오픈소스 공개와 AI 쇼핑 메이트, 플레이MCP 등이 포함

됐다.

플레이MCP는 이용자가 원하는 AI 톨을 직접 연결하고 개인화된 AI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카카오가 지향하는 '연결형 AI 플랫폼'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하반기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AI 기능을 별도 앱보다 카카오톡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 이용자 접점을 빠르게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자금 여력 확보 움직임도 눈에 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 처분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약 1조원 규모 현금 유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해당 재원이 향후 AI 신사업 투자와 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IT업계 관계자는 "결국 AI 시대 플랫폼 경쟁은 기술력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과 수익모델을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제로베이스원 컴백 기념' CJ ONE 리미티드 멤버십 카드 출시. /CJ올리브네트웍스

CJ ONE 제로베이스원 컴백 기념 리미티드 멤버십 카드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라이프 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이 21일 글로벌 그룹 제로베이스원 컴백을 기념한 리미티드 멤버십 카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는 제로베이스원 공식 팬클럽 '제로즈' 4기 회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한다. CJONE 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발급 이벤트를 진행하며, 지난 4월 30일까지 팬클럽 가입을 완료한 회원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한정판 멤버십 카드는 제로베이스원이 새롭게 공개한 로고를 활용해 제작했다. 카드 전면에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은 로고를 배치했으며, CJ ONE 대표 색인인 프리즘 핑크와 블루를 적용해 협업 콘셉트를 강조했다.

CJONE은 미니 6집 앨범 '어센드-' 발매를 기념한 특별 리플렛도 함께 제작했다. 리플렛에는 제로베이스원의 미공개 사진을 담아 팬 소장 가치를 높였다.

리미티드 멤버십 카드에는 CJONE 포인트 3000점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자는 CJONE 앱에 카드를 등록한 뒤 다음날부터 올리브영, CGV, 빙스 등 CJ 브랜드에서 포인트 사용 및 적립이 가능하다.

CJONE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원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한 만큼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KT, 정보보안 사전예방 나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 유출사고 예방·재발방지 체계 검토

KT가 정보보안 강화에 나선다. KT는 조직 내부에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거버넌스로 이달 중 출범한다. 박윤영 KT 대표가 발족식에서 자문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선정된 위원은 염홍철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의무 이행 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 조치 및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한편, KT는 지난해 7월 정보 보호 투자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 msjo@

NHN KCP,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착수

페이코와 온·오프라인 생태계 구축

종합결제기업 NHN KCP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검증(PoC)에 착수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NHN KCP는 이번 실증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와 협력해 구축한 결제 특화 메인넷 기반으로 진행한다. NHN KCP는 이를 통해 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환경을 검증한다.

온라인 영역에서는 페이코 앱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페이코 상품권을 결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증한다.

오프라인에서는 본사 사옥 내 카페와 구내식당 등 식음료 매장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다. NHN KCP는 실제 상업 환경에서 운영 안정성과 사용자 경험을 함께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NHN KCP 사옥 1층 카페 A're에서 NHN KCP 임직원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있다. /NHN

가맹점 운영 편의성도 강화했다. NHN KCP는 업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한다. 온라인 상품권 판매점과 오프라인 매장 점주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흐름과 정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성능 테스트 결과도 공개했다. NHN KCP는 약 7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실증 과정에서 QR 스캔부터 승인까지 평균 2초 내외의 속도로 결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그라비티, PC·콘솔 타이틀 사업 강화

'플레이 엑스포' 등 국내 행사 참가 韓·대만서 인디 퍼블리싱 성과도

그라비티가 21일 개막한 '2026 플레이 엑스포'를 비롯해 국내외 게임 행사에 연이어 참가하며 PC·콘솔 타이틀 사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라비티는 2023년부터 PC·콘솔 퍼블리싱 프로젝트 '스타트 위드 그라비티(START with GRAVITY)'를 전개하며 다양한 인디·콘솔 게임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반기 다수 신작 출시를 앞두고 상반기 행사 참가를 통해 이용자 반응과 게임 완성도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26 플레이엑스포'에는 그라비티 본사가, '비트서밋 펀치 2026'에는 일본 지

사인 그라비티게임어라이즈가 참가한다. 플레이엑스포에서는 '라이트 오디세이', '달려라 헤베레케 EX' 등 14종의 타이틀을 선보이며, 비트서밋에서는 '더 에쉬 오즈', '아르타' 등 다양한 작품을 출판한다.

그라비티는 최근 인디 퍼블리싱 성과도 이어가고 있다. '삼별초: 종말의 후손들'은 출시 당시 구글플레이 유료 인기 순위 2위를 기록했으며, '스노우 브라더스 2 스페셜'은 한국과 대만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 성과를 냈다.

그라비티는 향후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스팀 등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본과 서구권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크래프톤 '서브노티카 2' 400만장 판매

출시 5일 만의 성과

크래프톤 산하 게임 개발사 언노운 윌즈가 개발한 '서브노티카 2' (사진)가 글로벌 누적 판매량 400만 장을 기록했다.

크래프톤은 21일 '서브노티카 2'가 사전 출시와 함께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으며, 출시 12시간 만에 200만 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후 출시 5일 만에 글로벌 판매량 400만 장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기준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46만7000명을 기록했다. 일 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130만 명에 달했으며 누적 플레이 시간은 2857만 시간을 기록했다. 현재 스팀 내 이용자 평가는 7만3000여 개 리뷰 기준 '매우 긍정적' 평가를 유지 중이다.

언노운 윌즈는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업데이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차



패치를 통해 생물체 공격성과 인식 범위를 조정하고 생존 도구 활용성을 강화해 심해 탐험의 몰입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브노티카 2를 총괄하는 프로듀서 페르난도 멜로는 "전 세계 유저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드립니다"며 "사전 출시 기간 동안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크래프톤 이진형 본부장은 "서브노티카 2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용자 피드백"이라며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IT 대장주 옛말?”… 코스피 랠리에 힘 못 쓰는 네카오

(네이버+카카오)

올해 실적 늘었지만 주가 떨어져
본업 둔화·AI 성과 불확실성 우려
증권가 “AI 수익화가 핵심 변수”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상승 흐름 속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네이버·카카오’ 관련 이미지.

한때 ‘IT 대장주’ ‘AI(인공지능) 대표주’ 등으로 불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증시 랠리에서 소외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1일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11% 상승한 4만1800원에 마감했다. 연초 이후 카카오 주가는 30.45% 하락했다. 네이버는 4.18% 상승한 19만9500원에 마감했다. 같은 기간 17.73%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가 종가 7800선을 다시 넘기는 등 장밋빛 랠리와 대조적인 성적이다.

카카오는 코로나 불장이었던 2021년 6월 24일 장중 17만3000원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졌고, 이후 4년째 10만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카카오 주가는 5만~6만원대 박스권에 머물렀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이버 출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임명되며 주가가 29만8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현재는 고점 대비 약 33% 하락한 상태다.

실적 보다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탓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2411억원, 영업이익 54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7.2%씩 성장한 수치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다소 약했다. 카카오도 1분기 기준 역대 최

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 1조 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거뒀으며, 각각 11%, 66%씩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향방이 AI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은 이날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28만원으로, 카카오는 8만8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이버에 대해서 이종건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본업 성장 둔화 국면 속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사업 축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지면 내 광고 도입 후 광고 성장률의 구조적인 회복, 신규 수익 모델의 가시화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수익 창출로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광고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커머스 광고가 그동안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높은 기저 부담으로 향후 매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라며 “하반기 AI 탭·브리핑을 중심으로 광고 지면을 확대할 예정인데, 기존 광고와의 매출 잠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글로벌 빅테크와 같이 광고 업황 회복이 동반된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의 개선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본업보다는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주요하다”며 “본업의 이익 기여가 전

체 영업이익을 이끌어 가는 시점까지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트래픽 확보가 주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주가는 AI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이전트 AI의 수익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짚었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으로 기울고 있던 하나만약 단독 발행을 허용해 준다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내재화할 수 있어 온전한 수혜 기대가 가능하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파트너십을 진행, 진입 장벽을 낮춰 기존 국내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강한 유통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 역시 신사업 성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세계 혜택에 흔들린 서학개미… 해외투자금 2조 국내 복귀

미국 빅테크·레버리지 ETF 매도
이달 말까지 양도차익 100% 공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미국 레버리지 ETF를 팔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고 있다. 지난 3월 도입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2조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세계 혜택이 해외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출시 이후 지난 19일까지 누적 가입 계좌 수가 24만2856좌, 총 잔고는 1조94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 잔고는 1조2129억원에 달했다.

RIA는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 예탁금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절세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는 기본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RIA를 활용하면 일정 비율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RIA 매매종목 현황〉(3월 23일~5월 8일)

순위	종목명	매도액(억원)
1	엔비디아	1801
2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SOXL)	947
3	테슬라	504
4	알파벳A	451
5	애플	365
6	팔란티어	282
7	PROSHARES QQQ 3X(TQQQ)	195
8	INVECO QQQ TRUST(QQQ)	177
9	마이크로테크놀로지	153
10	AMD	150

*출시일 이후 5월 8일까지 누적 매수금액에서 누적 매도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장 큰 혜택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해외주식 매도 결제가 5월 안에 완료되면 양도차익의 100%가 공제된다. 사실상 해당 차익에 대해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국내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이후 공제율은 6월부터 7월 말까지 80%, 8월부터 연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세계 혜택을 유지하려면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계좌 안에서 국내

국내주식 등 순매수* 상위

순위	종목명	순매수액(억원)
1	삼성전자	780
2	SK하이닉스	667
3	현대차	146
4	KODEX 200	134
5	TIGER 반도체TOP10	123
6	삼성전자우	121
7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111
8	KODEX AI전력핵심선택	75
9	TIGER 200	71
10	두산에너지빌리티	54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조건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실제 투자자들은 미국 빅테크와 고위험 레버리지 ETF를 대거 매도했다. 지난 5월 8일까지 기준 해외주식 매도 상위 종목은 엔비디아(1801억원),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947억원), 테슬라(504억원), 알파벳(451억원), 애플(365억원) 순이었다.

팔란티어, TQQQ, QQQ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780억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됐고, SK하이닉스가 66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 KODEX 200, TIGER 반도체TOP10 등도 주요 매수 대상이었다. 해외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성장에 투자하던 자금이 국내 반도체 대표주와 관련 ETF로 이동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가입 계좌 기준으로 40대가 31%, 50대가 26%를 차지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잔고 기준으로는 50대 32%, 40대 27%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30대 가입 비중도 21%에 달해 젊은 투자자들의 관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국내시장복귀계좌는 해외시장에 머물던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국내 투자 상품을 통해 환율 안정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자산운용 美나스닥100 ETF 순자산 10조 돌파

미국 기술주에 장기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나스닥 100 ETF’ 순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 가운데 처음으로 달성한 기록으로, ‘TIGER 미국S&P500 ETF’에 이어 미국 대표지수 투자 시장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순자산은 10조 2916억원으로,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 가운데 순자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 가운데 최초로 순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이 최근 18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도 10조원을 돌파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해외 시장 대표형 ETF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2021년 순자산 1조원, 2025년 5조원을 차례로 돌파한 데 이어 약 1년 만에 5조원이 증가하며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대표지수 장기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10조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상장 앞둔 스페이스X… 머스크 의결권 85%

미국 SEC에 투자설명서 제출
차등의결권으로 절대 지배력 유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는 상장 이후에도 전체 의결권의 85.1%를 보유하게 돼 사실상 절대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일반 투자자에게 주당 의결권 1개가 부여되는 클래스A 주식을 발행하고, 머스크와 일부 내부자는 주당 의결권 10개를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했다.

이 구조에 따라 머스크는 본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해임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주주들의 법적 청구 역시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

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에서 개인 투자자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시작하며, 개인 투자자 15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6월 12일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재무 현황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 46억94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19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체 매출 가운데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32억5700만달러를 기록하

며 실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공지능(AI) 부문 매출은 8억1800만달러, 우주 발사 부문 매출은 6억1900만달러였다.

스페이스X는 미래 사업으로 소행성 채굴, 달과 화성에서의 에너지 생산, 행성간 여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화성에 영구 기지를 건설하고 100테라와트(TW) 규모의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머스크의 대규모 주식 보상을 이러한 장기 목표 달성 여부에 연동된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가치를 약 1조7500억달러로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한전, 獨 기업에 독자개발 'AI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이전

MR사와 SEDA 기술이전 계약
약 20억 기술이전료... 역대 최대
압도적 데이터 경쟁력 기반 성과

한국전력(한전)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을 해당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전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분야 선도 기업인 MR사(Maschinenfabrik Reinhausen)와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MR사로부터 134만 달러(약 20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된다. 이는 한전 단일 기술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성과는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여근택 한국전력 송변전운영처장(왼쪽 두번째)과 윌프리드 브로이어 MR사 CEO(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양사간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가 크다. 이번에 이전되는 'SEDA (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 system)'는 IoT 센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을 활용해 변전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판정·진단하는 한전의

독자 기술이다.

MR사는 이 기술을 자사의 예방진단솔루션 'TESSA'와 결합한 통합 플랫폼 'TESSA 2.0'을 구축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보유한 압도적인 데이터 경쟁력이 기반이 됐다. 다수의 예방진단 기업들이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달리, 한전은 약 200만 건의 개폐장치 운영 데이터와 3만 건 이상의 정제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SEDA를 개발해 기술 신뢰도를 높였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실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9월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

후, 총 21회에 걸친 사업화 협의와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과 기술 최적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의 상생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해 MR사가 생산하는 변압기 핵심 자재인 전압조정장치(OLTC)를 한전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화재 대응 기술과 친환경 기자재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국내외 사업 확대와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내 해운·항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PIER71 초청
해운항만 스타트업 지원행사 열어
싱가포르 시장진출·기술협력안 논의

부산항만공사(BPA)가 싱가포르의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해운·항만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21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이틀간 부산에서 '해운항만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에는 싱가포르의 해운항만 창업지원기관인 'PIER71' 관계자 등이 초청 받아 참석했다.

PIER71은 싱가포르 정부와 현지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항만 창업초기 기업 지원기관이다. 올해는 관계자들이 직접 부산을 찾아 부산지역 창업기업들과 만남을 가졌다.

행사 첫날에는 PIER71 관계자들이 BPA 본사를 방문해, 공사의 이른바 '보육기업'인 파이시시스템즈 및 아이피엘엠에스와 1:1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싱가포르 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들 보육기업이란 창업보육기관으로부터 사무공간,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 행사는 부산항만공사가 지원하는 창업기업들의 지속적인 성



싱가포르 해운항만 창업지원 기관인 'PIER71' 관계자 등이 부산항만공사(BPA)의 항만안내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PA

장을 도모하고, 기술협력 및 교류를 통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번 만남은 부산항만공사의 해운물류분야 창업지원 플랫폼인 '1876 부산' 입주기업들과 함께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해운물류 박람회(TOC ASIA 2025)에 참가했을 당시의 협력이 계기가 됐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공사의 항만안내선 '이그린호'에 탑승해 부산항 현장을 둘러봤다. 또 부산기술창업투자원·부산지역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 기관에서 보육 중인 유망 기업들과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PIER71이 주관하는 '스마트 포트 챌린지(SPC) 설명회'가 열렸다. 이 설명회는 전 세계 해양 분야의 혁신과제를

창업초기 기업들의 기술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창업육성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설명회는 ▲PIER71 및 2026 SPC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수료 기업의 성과 창출 사례 공유 ▲질의응답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선정되는 국내 기업에는, 지원금과 함께 싱가포르 항만에서의 기술 실증 및 투자 연계 기회가 주어진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의 만남이 올해 부산에서의 실질적인 협업 기회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국제 협력망을 적극 활용하여 부산의 유망 창업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인천항만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 우수

4년 연속 2등급 기록

인천항만공사(IPA)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그간 건설현장·시설물 점검 고도화와 항만안전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IPA는 재정경제부가 이달 상순 발표한 '2025년도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비교대상 중)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도 2등급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심사는 국내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는 지난해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구성원의 뜻을 결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모빌리티장비를 활용한 건설현장 및 시설물 점검 고도화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전 대상 시설 B등급 이상 확보 ▲해양수산부 합동 항만안전강화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공사 사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방침'에 따라 지난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밀폐공간 질식사고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활동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무사고 달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4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은 공사의 안전관리 체계가 공공기관의 선도적 모델로 정착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며 "인천항 전역에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유희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서산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체계적 구축

한국서부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손잡고 유희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서산 오토밸리·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발전 수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나누는 공공-민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참여기관들은 ▲공영주차장 등 부지 태양광 사업개발 계획 수립 ▲체계적인 운영 관리 ▲산업단지 내 시설·부지 활용 협의 ▲각종 인허



서산 오토밸리 전경 /서부발전

가 행정 지원 ▲입주기업 민원 조정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과 서산시는 우선 산업단지 내 유희 공간인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부지와 설비 규모, 이의 공유 방안,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향후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할 공공주도 이익공유 사업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네덜란드, 식량안보·AI 전환 등 농업 협력

13년 만에 MOU 보완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식량안보·AI(인공지능) 전환 등 농업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기존의 양해각서(MOU)가 13년 만에 개정되면서, 향후 양국 간 농업부문 교역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2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한 중인 네덜란드의 실비오 에르켄스 농수산·식량안보·자연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농업 협력에 관한

MOU를 보강해 새로 체결했다. 13년 만의 MOU 보완이다. 양측은 또 서로의 농업혁신 추진 현황 및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스마트농업 및 AI 전환, 에너지 전환 등 분야별 정책 현황이 소개됐다. 또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MOU가 체결됐다.

송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네덜란드의 선진 농업기술과 경험을 적극 도입

하고, 이를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해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국 간 농업 협력이 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첨단 농업기술을 보유한 세계 농산물 수출 강국이다. 그간 양국은 농업 정책 공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 왔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농업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상명대·한국외대·호서대 등 18곳 ‘고교교육 기여’ S등급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

S등급, 사업비 10% 추가 지원
B등급 학교는 예산 10% 삭감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상명대와 한국외대, 호서대 등 18개교가 S등급을 받아 추가 지원받는 반면,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 18개교는 B등급으로 분류돼 예산이 10% 삭감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8학년도 대입개편을 앞두고 대학들의 전형 개선 노력을 점검한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운영되며 총 585억 3300만원이 투



교육부.

입된다. 기본사업에는 91개교에 536억 8200만원, 자율공모사업에는 16개교에 38억 51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번 연차평가는 4주기 사업 2차 연도에 해당하는 2026년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이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2025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7·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대입 평가 역량 ▲고교교육 연계성 ▲

사회적 책무성 ▲예산 운영 등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20%), A등급(60%), B등급(20%)으로 구분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S등급 대학에는 사업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B등급 대학은 사업비가 10% 감액되고 사업관리기관인 대교협의 추가 컨설팅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 S등급 대학은 강원대 경기대 경인교대 대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인천대 조선대 진주교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동대 한양대(ERICA) 호서대 등 18개교다.

A등급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경운대 경희대 고신대 광운대 광주교대 국립경국대 국립공주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국립청원대 국립한국교통대 단국대 대구교대 대구한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WISE)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한라대 한림대 한양대 등 55개교다.

B등급은 건국대(글로벌) 경남대 계명대 고려대 국립금오공대 국립순천대 국립한밭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동명대 서강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중원대 한국공학대 한성대 홍익대 등 18개교다.

자율공모사업에 참여한 16개 대학은 모

두 적정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율공모사업은 ▲입학사정관 교육·훈련(경기대·숭실대) ▲교육과정 직접 지원(경남대·경상국립대·계명대·부산가톨릭대) ▲전형 운영 개선(동국대·서울대·한양대) ▲대입정보 제공 확대(고신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선문대·아주대·조선대·호서대)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6월 초 최종 평가 결과와 대학별 사업비를 확정·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대입전형이 공교육 안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대학별 전형 운영이 고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고교학점제 이해·진로 설계 도와드려요”

서울시교육청-11개 교육지원청
내달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서울시교육청이 내달 11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에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성취평가와 내신 이해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2028 대입 변화와 학생부 준비 방향 등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서울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활용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진로·학업설계 팝업 데스크, 고교학점제 토크쇼, 1대1 컨설팅 등도 운영된다.

설명회 일정과 신청 기간, 장소 등은 해당 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신청은 5월 26일부터 6월 12일

까지 교육지원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세부 운영 사항은 각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녀의 과목 선택과 진로·학업 설계를 돕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제공과 상담·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플랜비 2호 정원’을 조성하고 지난 20일 개장식을 열었다. /서울시

서울시-현대엔지니어링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플랜비 2호 정원’ 조성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플랜비 2호 정원’을 조성하고 지난 20일 개장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플랜비 2호 정원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동편 약 120㎡ 규모 풀밭정원과 관리사무소 옥상 약 60㎡ 규모 도시양봉장으로 구성됐다. 도시양봉장에는 5봉군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기프트하우스 플랜비(Plan Bee)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재정비축진지구 재개발 용적률 완화

재정비축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확대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있던 재정비축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로 확대하고 높이 기준을 차등 완화한다. 민간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재정비축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재정비축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1·2차 규제 완화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된 준주거·상업지역 중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그동안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공개공지 확보 중심에서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 시설까지 포함해 사업 선택지를 넓혔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역시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설, 보행가로 활성화 등으로 조정했다.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 1.2배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법적상한용적률 1.0배를 초과 적용할 경우 역세권 여부, 간선도로 접도 요건 등 입지 조건과 역세권 환경 개선, 열린공간 확보 등 공공성 기준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확일적 높이 제한 대신 중심지 기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심은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운영하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공공시설 제공이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마장호수’ 열린 관광지 조성

관광 약자 이동 편의 높여

파주시가 연간 130만 명이 찾는 관광지 마장호수 보행환경과 편의시설을 정비해 무장애 관광 기반을 넓힌다.

마장호수는 임진강, 공릉관광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2024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출렁다리 인근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을 우선 배치했다. 굴곡이 심했던 통행로는 완만한 경사로로 바꾸고, 무장애 데크 산책길과 쉼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출렁다리 진입부에는 ‘다용도 킥마루



마장호수 장애인 주차장을 우선배치했다.

광장’도 새로 조성했다. 관광객이 물리는 성수기에 진입부에서 발생하던 뱀목 현상을 줄이고,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수상 여가시설에도 무장애 요소가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9월 휠체어 고정 장치를 갖춘 ‘킥카누’를 도입했다. 겨울철 비수기 동안 운영을 멈췄던 킥카누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인천시, 내달 17일 ‘국제 해양·안전대전’

200여개 기업, 500개 버스 규모 참가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3일간 2026 국제 해양·안전대전이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수도권 유일의 해양 특화전시회로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이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웨어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2024년에는 200여개 기업과 1만 7000여 명이 참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전시회는 조선, 선박, 해양 안전 등 기존 분야와 더불어 인공지능, 자율운항, 친환경 선박 등 미래 해양 기술과 HD현대KTSAT 등 첨단 해양 장비 관련 200여개 기업이 500개 버스 규모로 참가해 해양·조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KOTRA와 최초 협업, 20개국 해양치안기관 및 무역업체 참가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실질적인 1:1 상담 진행

국내 해경 및 조선소 구매 담당자와의 미팅 확대도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양산업의 대표 콘퍼런스인 ‘코마린콘퍼런스’ 등 20여 개의 다양한 전문 세미나가 열려 산학 전문가와 관계자들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협력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 안전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실제 해경 채용 시험에 적용될 해양경찰 순환식 체험장’이 일반인과 수험생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윤희정 시 관광미이스과장은 “올해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많은 시민이 송도컨벤시아를 방문해 대한민국 해양 안전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스타벅스 '탱크데이' 역풍... 식품·유통가, 밈 마케팅 멈칫

신세계, 광주사업 파장 차단 분주 무신사, 광고문구 논란 다시 도마 GS25, 포스터 논란사레 다시 거론 LG생건, 젠더갈등 논란 재조명



서울시내 스타벅스 앞을 지나치는 시민. /뉴스시스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식품·유통업계 전반에 'SNS(소셜미디어) 마케팅 경계령'이 내려졌다. 특정 게시물이거나 프로모션 하나가 브랜드 이미지와 그룹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이벤트 문구와 낱자, 온라인 표현 등을 전면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 '대표 해임' 초강수에도 싸늘한 여론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SCK컴퍼니)의 '5·18 탱크 데이' 논란을 보고받은 즉시 격노하며 손정현 대표를 해임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 앞에 공식 사과했다.

신세계그룹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수습과 대표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광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업에 미칠 파장과 미국 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이마트 측 귀책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스타벅스 본사가 이마트 보유 지

분 전망을 할인된 가격에 되사갈 수 있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정치권 역시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리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과거 정 회장의 SNS 발언 논란 당시에는 두터운 고정 이용층과 공간 경쟁력 덕분에 이용자 이탈이 장기화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는 기류가 다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스

타벅스카드를 환불하거나 멤버십을 탈퇴하는 '탈벅 인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 반복되는 이유는 '게이트키퍼' 부재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은 있었다. 2019년 무신사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속건성 양말' 광고 카피로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해 못매를 맞았다.

또 2021년 GS25가 캠핑 포스터의 손가락 모양 논란과 호국보훈 포스터 내 군인 비하 표현으로 곤혹을 치렀으며, 지난해 LG생활건강은 '발씻자' 마케팅과 관련해 인플루언서 협업과정에서 젠더 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있다. 대기업 마케팅 콘텐츠가 통상 여러 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민감성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리스크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실시간 반응형 콘텐츠 경쟁에 따른 '게이트키퍼(내부 검증 시스템)' 부재가 꼽힌다. SNS와 숏폼 중심으로 마케팅 환경이 재편되면서 온라인 유행

어나 밈(meme)을 빠르게 차용하다 보니, 법무·대외협력 조직이나 임원진이 역사·정치·젠더적 맥락을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 식품가 전반 '다중 검수' 체계 강화 스타벅스 사태 이후 주요 식품기업들은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다시 정비하고 홍보대행사에 관련 지침을 전달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SNS 이벤트 운영 기준과 내부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내 경각심을 한층 높였으며, 부정적인 의미로 소비될 수 있는 일상 용어와 온라인 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젠더나 사회적 민감 이슈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는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MZ세대 공략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해오던 SNS 댓글 놀이나 밈 마케팅도 최근에는 극도로 자중하고 있다"며 "의도보다 '맥락'이 중요해진 만큼 매달 반복하던 단순 이벤트조차 낱자와 문구를 세밀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남양유업 '테이크핏' 中 SIAL 혁신상 셀렉션 선정

45g 단백질·저당 설계로 시장성 부각 매출 72% 늘어 고단백 제품군 확대 홍콩·몽골 등 해외 판로 확대 추진



남양유업 '테이크핏 몬스터'가 중국 상해 SIAL 식품박람회 혁신상 셀렉션에 선정됐다. 남양유업 글로벌사업팀이 사진촬영하고 있다. /남양유업

남양유업의 단백질 음료 브랜드 '테이크핏'이 중국 상하이 식품박람회 SIAL에서 혁신상 셀렉션에 선정됐다. 남양유업은 이를 계기로 초고단백 제품을 앞세운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초고단백 음료 '테이크핏 몬스터'가 '2026 중국 상해 SIAL 식품박람회(SIAL CHINA 2026)' 혁신상 셀렉션(Innovation Selection)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SIAL 차이나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하이 신국제전람중심(SNIEC)에서 열린 식품 산업 박람회

다. 혁신상 셀렉션은 참가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 차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남양유업은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운영한 K-푸드 선도시업관에 참가해 '테이크핏', '맛있는두유GT', '초코에몽', '프렌치카페' 등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혁신상 셀렉션에 선정된 '테이크핏 몬스터'는 단백질 45g을 함유한 제품이다. 운동 전후 단백질 보충과 간편 영양 섭취 수요를 겨냥했으며, 저당 설계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2분기 단백질 43g 제품으로 '테이크핏 몬스터'를 출시한 뒤 올해 1분기 단백질 함량을 45g으로 높여 리뉴얼했다. 최근에는 단백질 60g을 담은 '테이크핏 익스트림'도 출시하며 고단백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출시된 '테이크핏'은 소비 목

적과 유통 채널에 맞춰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운동 전후 섭취용 '테이크핏 맥스', 수분 보충 기능을 더한 '테이크핏 프로', 식사 대용 제품 '테이크핏 브레드밀' 등을 운영 중이다. 유통 채널도 무신사, 올리브영 등으로 확대했으며 홍콩·몽골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테이크핏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서성현 남양유업 글로벌사업팀장은 "이번 선정은 제품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확인한 사례"라며 "기능성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hy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번호 확인해요" CU, 산림청과 '라면 국물 제로 캠페인'

기능성·안전성 따지는 소비문화 확산

hy가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시 '균주번호(Strain Number)' 확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순 브랜드 인지도보다 균주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소비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hy는 오는 31일까지 '5월 균주번호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구매 과정에서 균주번호 확인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회사는 최근 배구선수 출신 김연경을 캠페인 모델로 발탁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균주번호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별 체계다. 같은 종의 유산균이라도 균주별로 기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제품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된다.

소비자는 제품 패키지 QR코드를 통해 적용 균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y는 제품 원료와 기능성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동네 코코에서 균주번호 찾기'는 프레스 매니저 냉장카트 '코코'에 부착된 균주번호 포스터를 촬영해 응모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니터, 무선이어폰, 토스터 등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등산객 대상 '매직밤' 무료 배포

CU가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산림청과 함께 '라면 국물 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CU는 이번 캠페인에서 등산 도중 나오는 다양한 국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액체 흡수제 '매직밤(Magic Bomb)'을 무료 배포한다.

매직밤은 남은 국물에 넣으면 액체를 젤 형태로 굳혀 일반 쓰레기로 간편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돕는 휴대용 국물 응고제다. 라면 국물뿐 아니라 음료, 국물류 등에도 활용 가능한 산행 중 발생하는 액체성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U는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 금정



CU가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산림청과 함께 산행 중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연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라면 국물 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BGF리테일

산, 미륵산, 팔공산, 설악산, 월악산, 내장산, 소백산 등 전국 10개 유명 산림 등산로 인근 CU 점포 10곳에서 매직밤 4000여 개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쿠팡이츠 배달비 0원 혜택 일반회원도 적용

쿠팡이츠가 오는 8월까지 일반회원에게 '매 주문 배달비 0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쿠팡이츠가 와우회원 대상 제공하는 고객 배달비 0원 혜택을 일반회원 대상 확대한 것이다. 고객 배달비 0원 혜택은 쿠팡이츠가 운영되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별도 쿠폰이나 할인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물가 부담을 줄여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회원까지 '고객 배달비 0원'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고객은 물론 입점 업체 사장님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LF '헤지스' 글로벌몰 1년 순항 156개국 고객 유입

LF의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글로벌 공식 온라인 스토어 론칭 1년 만에 전 세계 156개국 약 19만명의 고객이 유입됐다고 21일 밝혔다. 헤지스 글로벌 사이트는 영문몰과 중문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누적 방문자는 총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영문몰 방문자는 13만3000명, 중문몰 방문자는 5만5000명이다. 영문몰 기준 국가별 방문자는 중국이 약 7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베트남(1만5000명) ▲미국(7000명) ▲인도(4000명) ▲인도네시아(3000명) ▲싱가포르(2만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서현 기자

올리브영, 미국 첫 매장 연다... K-뷰티 세계 공략 본격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오픈
중소 등 약 400개 브랜드 구성
피부 진단 등 체험형 매장 운영



올리브영 미국 패서디나 매장 전경 투시도 이미지.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K뷰티' 등용문이자 글로벌 관광객의 K쇼핑 성지인 CJ 올리브영이 미국 본토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세계 최대 시장 정복에 도전한다. 그간 국내 중소·인디 브랜드들이 개별적으로 해외 현지 이커머스나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겪었던 한계를 뛰어넘고, 올리브영의 독보적인 '큐레이션' 역량을 집약한 대형 플랫폼을 미국 중심지에 통째로 이식한다.

21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CJ 올리브영의 첫 미국 오프라인 매장이 오는 2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문을 연다.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이 위치한 지역은 글로벌 고급 브랜드를 아우르고 있다. 해당 매장 바로 옆에는 애플스토어가 있고, 도보 1~2분 거리 내에 톨루레온, 알로 요가, 티파니엔코 등이 밀집해 있다. 이는 올리브영이 미국 상류층을 정조준해 최신 핵심 상권에 도전장을 던진 모습이다.

이번 매장은 연면적 803㎡(약 243평) 규

모에 단층으로 꾸며졌다. 국내 올리브영 타운 매장 평균 크기(약 258평) 수준이다. 우선 약 400개 브랜드의 50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전체 입점 브랜드의 80% 이상은 유망 K브랜드로 이뤄졌다. 글로벌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실제로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구성이다. 특히 매장 입구에서는 K뷰티 브랜드 1곳을 집중 소개하는 팝업을 통해 중소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다.

매대는 기능, 성분, 제형, 피부 고민 등

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K뷰티 브랜드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최소 2주 단위로 재단장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 브랜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체험 요소도 강화했다. 클렌징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피부나 두피 상태를 진단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올러 올리브영은 독자 구축한 반반 접객을 미국 매장에서도 구현한다. 기존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탐색하듯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 대응해 왔다. 다만 K뷰티가

낮선 소비자까지 응대하기 위한 직원 교육도 마쳤다.

이와 함께 미국 전용 온라인몰도 본격 운영한다. 올리브영 특유의 '옴니 채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미국 온라인몰 배송 기간은 올리브영 역직구 창구 '글로벌몰'보다 단축된다. 기존 5~7일에서 '3~5일'로 절반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배송 기준 역시 기존 60달러 이상에서 '35달러 이상'으로 대폭 낮춰 구매 장벽을 허물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 3월 캘리포

니아 블루밍턴에 서부 통합 물류센터를 세웠다. 이 센터는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를 공급하는 물론 온라인몰 배송을 처리한다. 현재 1100평이며 향후 물동량에 따라 최대 5000평까지 확장 가능하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실시간 재고와 오프라인 매장을 연동한 '매장 픽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 브랜드를 체험한 고객이 온라인 재구매를 이어가도록 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린다.

올리브영은 미국 전역으로 오프라인 거점을 지속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서 중남부, 뉴욕을 포함한 동부까지 순차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소비자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는 미국법인장은 "첫 매장인 패서디나점은 한국에서 쌓은 K뷰티 인사이트와 브랜드 인큐베이팅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전진기지"라며 "아직 K뷰티가 생소한 현지 소비자들도 올리브영의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진짜 K뷰티'를 발견하고 일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삼천당제약, 'S-PASS' 국제특허 체계 정비

안정적인 IP 운영 기반 확보
바이오 의약품 경구제 전환 목표

삼천당제약은 경구용 플랫폼 기술 'S-PASS'와 관련해 PCT 국제특허 출원인 변경 및 대만 특허 권리 구조 정비 절차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S-PASS 플랫폼의 글로벌 사업 확대와 지식재산(IP) 관리 체계 일원

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진행됐으며 관련 권리 구조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사업 추진 및 파트너십 논의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IP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PASS는 삼천당제약이 개발 중인 경구용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로, 기존 주사제 기반 바이오 의약품의 경구제 전환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현재

플랫폼 적용 범위 확대와 글로벌 사업화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권리 구조 정비는 글로벌 사업화 및 라이선스 전략과 연계된 IP 포트폴리오 체계화 과정의 일환"이라며 "향후 S-PASS 플랫폼 기반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지난 12일(현지 시간) '한·중남미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 행사에서 조아제약 박현규 부장(가운데 오른쪽)이 현지 바이어에게 조아제약을 소개하고 있다. /조아제약

조아제약, 중남미 바이오 파트너십 참가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 구체화

조아제약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중남미 바이오메디컬 파트너십'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것으로 조아제약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멕시코 9개사, 브라질 10개사 등 총 19개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이어갔다.

조아제약은 국가별 의약품 허가 및 등록 규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웠다. 멕시코와 브라질에서 각각 2~3곳의 유력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향후 현지 공급망 구축과 제품 등록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올러 최근 고테말라로 간장활성화제 '헤파토시럽', 정맥·림프순환장애 치료제 '엘라에이액' 등을 수출하는 등 조아제약은 중남미 지역을 지속 공략해 왔다.

/이청하 기자

오스템파마 고형제 위탁생산 확대

오스템파마가 독자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형제 부분에서 위탁생산(CMO) 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생산 품목을 다각화해 미래 성장 전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처방 비중이 높은 성분의 품목인 소화기관용제 '알마게이트500mg'와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소염진통제 '복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나프록센나트륨' 등이 대표적이다.

필수의약품 '해열진통제' 성분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 관련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지속 다각화할 계획이다.

오스템파마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의약품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데이터 완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데이터 완전성이란 최초 생성부터 사용, 폐기까지 의약품 제조 현장 전반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입증하는 지표다. 데이터가 얼마나 완전하고 일관되며 정확한지를 나타내며 모든 정보가 인위적인 변조 없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한국콜마, 노화 유발물질 제거 기술 개발

전북대 이동원 교수팀과 공동연구
제약·화장품 융합한 항노화 기술

한국콜마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부 이동원 교수팀과 항산화 신소재 '토코페롤-옥살레이트-토코페롤(TOT)'을 공동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소재를 스마트 리포솜과 결합해 진피층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술까지 구현했다.

이번에 개발한 'TOT'는 신약개발에서 쓰이는 암 세포를 표적하는 치료 원리와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한 사례다.

우선,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토코페롤(비타민 E) 분자 두 개를 특수 결합체

인 퍼옥살레이트로 연결했다. 피부 속 노화 원인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만나면 결합이 풀려 비타민 E가 방출된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활용했다. TOT를 미세한 스마트 리포솜으로 감싸 피부 진피층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진피층에서 TOT는 노화 원인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

그 결과, 한국콜마는 과산화수소가 있는 환경에 TOT를 도입하자 30분 만에 농도가 40% 이상 감소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올러 TOT는 일반 비타민 E의 10분의 1 양으로도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포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항노화 화장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국제 분석숙련도평가 '만족' 획득

8년 연속 분석 역량 입증

광동제약은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 A)이 주관하는 식품분석숙련도평가(FAPAS)에서 8년 연속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획득해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FAPAS는 각국의 정부기관·대학·연구소 등이 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받기 위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평가는 참가기관의 분석값과 기준값 간 차이를 수치화한 표준점수(Z-score)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점수가 0에 근접할수록 높은 정밀도를 의미하며, ±2 이내일 경우 '만족(Satisfactory)' 판정을 받는다.

광동제약은 2018년부터 매년 FAPAS



광동제약 R&D연구소 모습.

평가에 참여해 미생물, 영양성분, 잔류물질,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 판정을 유지해 왔다. 2025년도 평가에서는 비타민 B1·B2·B6, 나이아신, 마그네슘, 구리 등 영양성분 분석과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보존료 등 대부분 항목에서 0에 가까운 표준점수를 기록하며 우수한 분석 정확도와 정밀성을 재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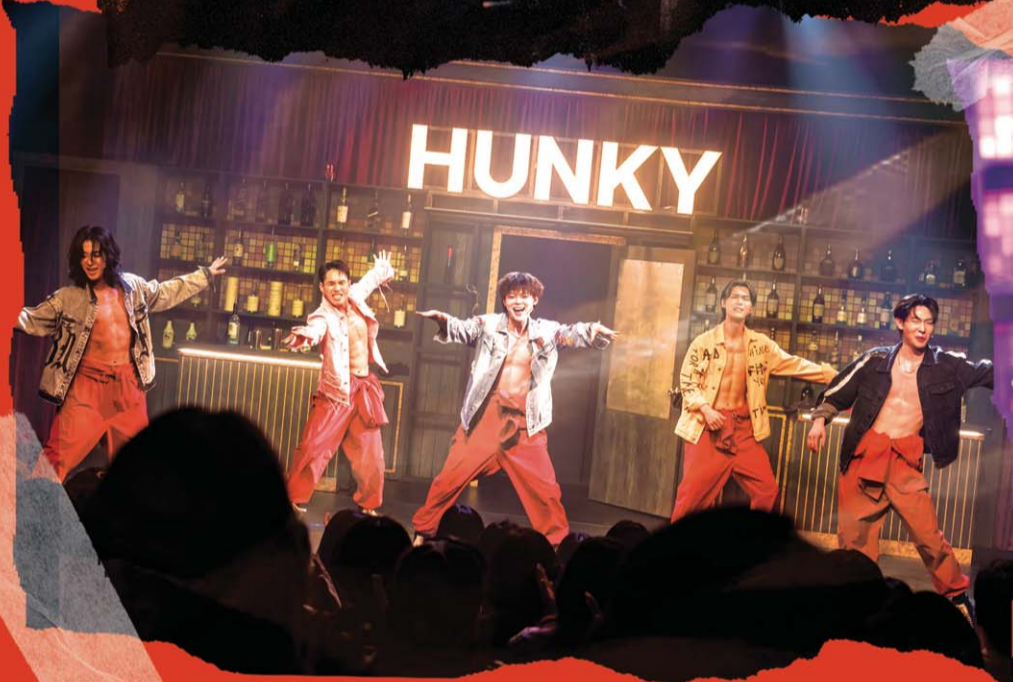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스타스태이지

본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관객 참여로 더 큰 재미!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ETICKET 바로가기

| NOL 티켓 평점 10점 |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방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물 날 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효성, 국가유공자 문화활동 지원... 감사·존경 마음 전해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사회공헌 활동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힐링 나들이

효성이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효성은 지난 20일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힐링 나들이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야외활동 기회가 적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삶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가유공



효성이 20일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나들이를 진행했다. /효성

자 및 보훈가족 20명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를 찾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

여했다. 참가자들은 남양주 다산 정약용 생가

와 유적지를 둘러본 뒤, 딸기농장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수목원으로 이동해 족욕 체험과 산책, 티타임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효성은 2017년부터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를 위한 나들이와 문화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또한 삼계탕과 팔죽 등 계절 맞춤형 보양식 후원도 이어가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보-IVA, 혁신 스타트업 발굴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이노폴리스벤처협회(IVA)와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디-유니콘라운지에서 '이노폴리스벤처 혁신 스타트업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원희 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이재필 기보이사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홈앤쇼핑,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

홈앤쇼핑은 21일 전남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전국 5대 권역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올해 두 번째 행사로 '지역 소상공인 e-커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이현승 중소기업지원본부장(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앤쇼핑



아워홈, 아동·청소년들과 바비큐 파티

아워홈이 서울 종로구 선덕원을 찾아 아동·청소년들과 야외 바비큐 파티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온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직원 봉사단은 아이들과 식사를 함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통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아워홈

금호타이어 '안전 네컷' SNS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내달 5일까지 '안전 네컷'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3월 넷플릭스와 기업 브랜드 파트너십을 맺고 선보인 시청 안내 캠페인 '넷!가이드'의 연장선이다.

참여 희망자는 집 안집 밖 콘셉트로 제작된 전용 프레임용 촬영용 사진을 촬영한 뒤 지정 해시태그 및 계정 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피드에 업로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의 당첨자(프레임별 50명)를 선정하며, 집 안 프레임 당첨자에게는 쿠션, 머그컵, 수면 안대, 담요 등 실내에서 활용 가능한 굿즈 세트를, 집 밖 프레임 당첨자에게는 실외에서 활용 가능한 아웃도어 굿즈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급 전보 △조사조정국장 이재형

부음 ▲박분조씨 별세, 반응규(울산 CBS 보도국장)씨 장모상=21일, 부산 갑을 녹산병원장제시장 특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51--972-1024

아시아나, 국가유공자 국내선 특별 할인

호국보훈의 달 맞아 최대 50% 혜택

아시아나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유공자 및 유족, 동반 보호자(1인)에게 최대 50%의 운임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탑승하는 항공편이 대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동반자에게 30~50%

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 온 바 있으며,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동안에는 그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지원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지참시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일반석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반 보호자 1인도 함께 탑승시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CJ문화재단, '드림 투 스테이지' 팝업 운영

설립 20주년 맞아 사업·콘텐츠 소개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음악·영화·뮤지컬 등 재단 지원 사업과 참여 창작자들의 활동을 체험형 콘텐츠로 소개하는 행사다.

CJ문화재단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CJ문화재단 20주년 팝업스토어 드림 투 스테이지(DREAM TO STAGE)'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음악·영화·공연·글로벌 지원사업을 주제로 한 4개 존과 MD 존으로 구성된다. 방문객들은 전시, 영상, 게임 등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재단 지원 사업과 창작자들의 작업물을 접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20주년 기념 MD와 튜입 뮤지션, 스테이지업 작품 굿즈를 판매한다. 팝업 기간 동안 뮤지션과 뮤지컬 배우가 참여하는 이벤트와 DJ 공연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삼성물산 패션, '하티스트' 수혜 대상자 모집

비즈니스 캐주얼 의류 무상 제공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CSR 브랜드 '하티스트'의 하반기 수혜 대상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CSR 브랜드 '하티스트'를 통해 장애인 100명에게 비즈니스 캐주얼 의류 총 300매를 기부한 데 이어 장애인 100명에게 자체 제작한 비즈니스 캐주얼

의류 1세트씩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아우터·상의·하의 각 1매로 구성된 비즈니스 캐주얼 의류 세트 총 300매 규모다. 기부 의류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기능적 요소가 적용됐다. 얇은 자세에 맞춘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는 액션밴드, 착탈 편의를 위한 긴 지퍼와 벨크로 여밈 등의 디테일을 반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애경산업, '네 곁에, 늘 곁에' 토크쇼 후원

애경산업이 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행사에 동참한다.

애경산업은 오는 22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휴먼라이브러리 세미나 '네 곁에, 늘 곁에' 토크쇼를 후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미혼모·부, 한부모 당사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감과 소통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 사회 참여 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서 주변 이웃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난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2025 딜러 어워드'에 참가한 공식 딜러사와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벤츠코리아, 우수·딜러사 임직원 시상

'2025 딜러 어워드' 개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 만족에 기여한 공식 딜러사 및 임직원에게 시상식을 진행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5 딜러 어워드'를 열고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식 딜러사와 임직원을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공식 파트너사 임직원 2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31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으며, '올해의 딜러사'에는 판매 실

적과 고객 만족도, 서비스 품질에서 고른 성과를 낸 모터윈이 선정됐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운영 성과를 통한 평가하는 '올해의 딜러십'은 스타자동차 금정 딜러십이 수상했다.

'올해의 고객만족도 전시장'에는 한성모터스 부산 북구 전시장, '올해의 고객만족도 서비스센터'에는 KCC오토 영등포 서비스센터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올해의 영업사원', '올해의 테크니션 팀', '올해의 인증중고차 영업사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탁월한 역량을 입증한 총 48명의 임직원과 41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성운 기자 ysw@

한국전력공사, 김태옥 상임감사위원 선임

전력그리드 본부장 등 역임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태옥(만 62세·사진) 전 전력그리드본부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선임 상임감사위원은 영등포고와 아주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한전에 입사했다. 이후 계통계획실장, 기술기획처장, 광주전남본부장, 전력그리드본부장을 역임하며 약 35년간 한전에 재직했다. 퇴직 후 2024년에는 대한전기학회 협동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늘의 날씨

5월 22일(금) 음력: 4월 6일

수도권 날씨 15~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8 | 해질 / 19:40

백령도 15/20, 파주 12/26, 서울 15/26, 양평 13/26, 인천 15/27, 수원 14/25, 평택 13/25, 연천 12/25, 동두천 13/25, 가평 12/24, 용인 14/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관료의 몰락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쯤 지났을 때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장관을 역임한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선배 때문에 관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정말 뼈아픈 것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다. 후배들의 앞날이 더 걱정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가 말한 ‘한 선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공무원 사회에서 한 전 총리는 신화적인 존재였다. 통상산업부 차관, 재경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다시 한번 총리직에 올랐다. ‘관료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을 정복한 인물이다. A씨는 “관료로서 명예와 정점을 모두 누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정의롭지 않은 길에 동조하고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워도 선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 후배들이 받은 상처는 이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행정고시 출신 후배들의 앞날이 캄캄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가 우려한 것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함께 관료에 대한 신뢰 붕괴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인다. 그들은 정치 격랑 속에서도 “정권은 유한해도 국가와 정책은 영원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전직 장관 A씨가 한탄한 후배들의 ‘캄캄한 앞날’ 역시 이자부심의 붕괴를 걱정한 것이다.

현실은 차갑고 ‘냉정’하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주요 기관 인사에선 관료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묻어났다. 관료 세력에 더이상 국정 파트너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변호사 출신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호탄이었다. 지난 19일 마감한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 공모 결과 관료 출신은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과거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출신의 관료가 퇴임 후 거쳐 가는 코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여의도 금융가와 관가 안팎에선 이미 공모 전부터 청와대 라인을 통해 “관료 출신은 지원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괜히 지원했다가 눈치 없는 구태 관료’로 찍혀 낙마하느니 아예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관료 불신으로 초래된 인사 절벽은 하반기 금융권을 더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2월에는 금융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김철주 생명보험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두 사람 모두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을 거친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이다.

통상 임기 몇 개월 전부터 차기 회장 자리를 두고 한마당이 무성해지며 논의가 활발해진다. 금융위나 재정경제부 출신의 관료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물밑 작업을 벌인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기류가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 그동안 보험협회장 자리는 관료 출신들의 전유물이자 요직 중의 요직이었지만, 지금은 감히 쳐다보기조차 힘든 자리가 됐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관료 배제 스탠스’가 확실해지면, 올 연말 차기 보험 관련 협회장은 과거의 공식이 깨질 개연성이 크다. 관료 출신 배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교차한다. 정책 경험이 풍부한 관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금융당국과 시장의 ‘소통 불통’도 우려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관료든 민간이든 능력있는 사람이 임명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선배의 과오로 후배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전직 장관. 실제로 ‘관료의 몰락’을 마주하고 있다. 관료 사회가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해 마주한 현실이다. ‘욕심 많고, 영혼 없는 관료’가 사라져야 다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여신협회장, 민관보다 중요한 것은?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7개월 만에 가동된 여신금융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의 공모 결과 차기 회장으로 민간 출신의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서류 심사는 시작되지 않은, 원서 접수 단계에 불과한 시점이다. 접수된 서류를 심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유력 후보자 평가 나오는 아이러니다.

청와대, 금융당국 등 윗선에서 관료는 지원조차 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 현 정권의 관피아(관료+마피아), 모피아(재정·금융 관료+마피아) 배제 성격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여신협회장 선거에서는 관피아 논란

이 꼬리처럼 따라 붙었다. 관료 출신이 요직을 맡는 관행이 되풀이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선거마다 후보자의 출신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것도, 이번 선거에서 관료는 지원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온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관 출신을 따지기 전에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피아·모피아에 대한 반감의 본질은 ‘외풍’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에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만으로 선거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문제는 관료 출신 여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듯한 분위기, 선거 구조가 무력해졌다는 시선이 반발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 역시 개과천선은 없었다. 윗선에서 “관료는 지원조차 말라”는 지시 사항이 내려

왔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선거 시스템, 투표권을 무력하게 한다. 개입은 여전하다. 그저 관피아가 민피아(민간인 출신+마피아)로 변신했을 뿐이다.

실제 이번 선거의 민간 출신 후보군에서도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전라남도, 중앙대, 현 정부 정책보좌관 경력 등 이재명 대통령과 접점으로 읽힐 만한 요소들이 거론된다.

지금 카드업계는 다크호스가 아닌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민’이나 ‘관’이냐의 구분이 아니다. 어렵게 상황을 타개할 역량이 있는 인물인지의 여부다.

업계는 수익원 발굴 문제, 규제 완화, 조달 금리 상승 부담, 건전성 문제 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회장을 원한다. 민간 출신이든 관료 출신이든, 연출로만 뽑힌 회장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wotis4187@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 (음 4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하늘도 귀하의 의지를 알고 돕습니다. **60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72년생**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습니다. **84년생** 덕이 멀리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49년생 혼자 힘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1년생** 동거나 선배의 도움을 구하세요 **73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85년생** 취업이 용이할 것입니다.



50년생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에 조심하세요. **62년생** 이득이 될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4년생** 과욕을 삼가하세요. **86년생** 적성과 급여 사이에서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51년생 소신 있는 행동이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63년생** 인복이 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유행성 독감을 주의하세요.



52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64년생** 물건을 잃었으므로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76년생** 운전시 각별히 주의하세요. **88년생** 만사형통한 아주 좋은 하루입니다.



53년생 늘 조심성 있게 천천히 나아가세요. **65년생** 중심을 잡지 못해 마음이 몹시 심란합니다. **77년생** 상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89년생** 음과 양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54년생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 보세요. **66년생** 거래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78년생** 용기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90년생** 항상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세요.



55년생 어려움이 닥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67년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79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겠습니다. **91년생** 인내심과 끈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56년생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68년생** 괜한 자존심에 얽매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0년생** 이루어지는 만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92년생**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57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9년생**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81년생** 도움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듭니다. **93년생** 험사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58년생 평소 애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70년생** 분명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82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94년생** 큰 지출이 예상됩니다.



59년생 복운을 만나 마음까지 평온해 지겠습니다. **71년생** 능력은 짧고 보잘것 없는데 버리는 것은 원대합니다. **83년생** 기다림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95년생** 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복 부르는 초파일 연등

신록이 짙어지는 요즘, 거리에 나서면 형형색색의 연등이 눈을 가득 채운다. 석가탄신일인 4월 초파일이다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름다운 연등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깊은 뜻과 복됨이 함께 숨어있다. 단순히 보기 좋은 풍경을 넘어, 왜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밝히고 복을 빌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닫게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다. 초파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등이 떠오른다. 불교에서 등불은 지혜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지혜는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게 만든다는 의미가 연등에 담겨 있다. 초파일이면 누군가는 자식의 건강을 기원하고 누군가는 사업이 번창하기를 소망한다.

연등이 복을 가져온다는 말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등을 공양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정성으로 등을 달고 불을 밝히면, 간절한 마음이 우주의 기운과 닿아 부처님의 기쁨을 입게 된다. 정성이 깃들어 있는 등불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막혔던 운을 열어준다. 거리의 예쁜 연등을 보고 감탄하는 것으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연등을 구경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복을 구경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에게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다면, 초파일에는 내 이름이 적힌 등을 직접 달아야 한다. 연등을 달아야 부처님과 나와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고 가피를 받는다. 작은 등 하나라도 직접 공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 되어 운세의 흐름을 바꾼다. 연등의 등불이 삶의 그늘진 부분을 밝게 해주고 복을 끌어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지루한 와인 대신 달나라 같은 포도밭, 달걀만한 포도송이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6

더힐트(The Hilt)·호나타(JONATA)

포도송이, 포도알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포도알이 작고, 껍질이 두껍다면 척박한 환경에서 저 깊은 땅속의 영양분을 어떻게든 빨아들이려고 애썼겠구나 싶다.

포도나무 입장에서 극한 환경이지만 와인 양조에 있어선 성지다. 혹독한 만큼 테루아를 그대로 투영시킬 수 있으니 말이다.

미국 산타 바바라에 위치한 와이너리 더힐트와 호나타의 총괄 최고경영자(CEO)인 아르망 드 마에그(Armand de Maigret)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좋은 와인이란 처음엔 입 안을, 나아가 뇌를 깨우고 에너지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망이 한국을 찾은 것은 13년 만이다. 그는 미국 컬트 와인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크리밍 이글’도 이끌고 있다. 더힐트와 호나타는 스크리밍 이글이 나파밸리가 아닌 곳에서 와인을 선보이고



미국 컬트 와인 스크리밍 이글과 더힐트, 호나타의 총괄 최고경영자(CEO)인 아르망 드 마에그(Armand de Maigret). 와인은 (왼쪽부터)더힐트 샤도네이 2022, 더힐트 피노 누아 2022, 호나타 플로르 2022, 호나타 엘 데사피오 2019, 호나타 토도스 2020. /안상미 기자

자 시작한 프로젝트다.

호나타가 먼저였다. 산타 이네즈의 발라드 캐년은 당시만 해도 포도밭이라고는 없던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비치발리 볼 코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래밭이다. 그러다 비가 오면 한 두달씩 쉬지않고 쏟아졌다.

그는 “경적이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대부분의 품종을 심었다”며 “지금은 17개 품종을 재배하고



산타 리타 힐즈의 구조토 토양(왼쪽)과 척박한 환경에서 응축된 작은 포도송이. /나라셀라

있으며, 다양한 블렌딩으로 와인에 테루아를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인이 너무 쉬우면 지루하다. 척박한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얻은 산도는 살아있는 생동감, 혹은 활기 그 자체다.

더힐트는 산타 바바라 인근의 산타 리타 힐즈를 주목했다. 회백색의 구조토를 기반으로 해 아르망이 “달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할 만큼 독특한 토양이다. 바다를 향해 열린 북향 능선에 위치해 거센 해풍을 온몸으로 맞아 포도송이는 손바닥의 반도 안되게 작고, 포도알은 껍질이 두꺼워 고도로 농축된다.

산타 리타 힐즈는 아르망이 추구하는

샤도네이에 딱 맞는 환경이다. 현재 피노 누아와 샤도네이의 재배 비중은 7대 3으로 당초 9대 1에서 샤도네이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더힐트 샤도네이 2022’는 더힐트가 추구하는 그 생동감, 에너지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 코에서는 아주 잘 익은 과실이 느껴지는데 입 안에서는 힘있는 산도와 미네랄이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더힐트 피노 누아 2022’은 붉은 과실, 오렌지와 함께 풋고추의 향, 향긋한 홍차까지 느낄 수 있다. 입 안에서는 과즙을 머금은 듯 침이 고인다. 촉고 바람부는 땅에서 자란 피노 누아답게 좋은 산도와 농

축미가 균형을 잘 이뤘다.

호나타의 와인은 힘이 느껴지면서도 타닌은 매끄럽다. 모래 토양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호나타 플로르’는 소비농 불량 85%에 세미용을 섞었다. 2022 빈티지는 이름(플로르)처럼 풍성한 꽃향기로 시작해 황도와 리치같은 과실향이 어우러진다. 허가 싹쓸하다 싶은 정도로 높은 산도에 여운이 길게 이어진다.

‘호나타 엘 데사피오’는 알이 작고 응집력 있는 카베네 소비농을 길고 느리게 발효한다. 데사피오는 스페인어로 도전을 뜻한다. 스텀리밍 이글이라는 최정상 컬트 와인의 신화는 뒤로하고 극한의 테루아에서 독창적인 와인을 만들어낸 호나타의 도전 정신을 상징한다. 2019 빈티지는 검붉은 과실에 부드러운 질감이 길게 이어지며, 역시 좋은 산도로 생동감이 살아 있다.

‘호나타 토도스’는 시라 품종 절반 가량에 나머지는 카베네 소비농과 삐디 시라, 카베네 프랑 등을 섞었다. 토도스는 ‘모두’라는 뜻이다. 모두 호나타의 포도밭에서 자란 품종이다. 2020 빈티지는 코에서부터 철분 미네랄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하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CJ, 미국 골프팬 공략... PGA서 체험존 운영

제일제당, 셰프 협업 메뉴 선보여
푸드빌, 인기 제품 시식 공간 마련

CJ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이 미국 PGA 투어 정규대회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무대로 K-푸드와 K-베이커리의 글로벌 확산에 속도를 낸다. 양사는 현지 관람객들에게 한국 식문화 전부를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21일 CJ제일제당과 CJ푸드빌은 현지 시간 기준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리는 ‘더 CJ컵 바이런 넬슨(THE CJ CUP Byron Nelson)’에서 각각 글로벌 K-푸드 브랜드 ‘비비고’와 K-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해 전 세계 골프팬들에게 한국 식문화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대회 기간 대형 팬트리 콘셉트의 ‘HOUSE OF CJ’와 코스 내 두 곳의 ‘비비고 컨디션(Concession)’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외 유명 셰프들과의 협업 메뉴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미국 인기 요리 프



더 CJ컵 17번홀 비비고 컨디션 랜딩 부스

/CJ제일제당

로그램 ‘아이언 셰프(Iron Chef)’ 우승자 보 맥밀런, 뉴욕 한식 파인 다이닝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를 비롯해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자인 유용욱 셰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비비고만두, 김치, K-소스, 소비바치킨 등을 활용한 이색적인 K-푸드 메뉴를 선보인다.

7번 홀에 조성된 비비고 컨디션은 한강공원을 연상시키는 계단식 데크 공간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음식을 즐기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현장 몰입감을 높였다.

17번 홀에서는 ‘그랩 앤 고(Grab & Go)’ 형태의 스낵 메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국내 중소 양조장과 협업해 만든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jari(자리)’를 통해 문배술과 가무치소주를 활용한 4종의 칵테일을 선보이며 K-리커(한국 술) 확산에도 나선다. ‘자리’는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역시 갤러리 플라자 내 약 750㎡ 규모로 마련된 ‘HOUSE OF CJ’ 공간에서 ‘Celebration in Every Day(매일의 축하)’를 콘셉트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뚜레쥬르의 대표 제품인 ‘클라우드 케이크’를 대형 오븐제로 구현해 관람

객들이 인증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브랜드 굿스와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플링코 이벤트, 사전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일 축하 이벤트 등을 통해 일상 속 축하의 순간을 함께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제품 체험존에는 현지 시장에서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단팻빵, 진한 우유 크림빵, 클라우드 도넛 등 대표 메뉴를 전면에 배치해 글로벌 골프팬들의 입맛을 공략한다. 또한, CJ푸드빌은 현장에서 K-푸드 브랜드 ‘두루미’도 함께 소개해 더욱 풍성한 한국 식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CJ가 PGA 투어라는 글로벌 스포츠 플랫폼을 활용해 K-푸드와 K-베이커리, K-리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한국 식문화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더 CJ컵은 선수단과 관람객 사이에서 ‘PGA 최고의 맛집’으로 불릴 만큼 미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 사례로 자리 잡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확대된 규모와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관람객들이 비비고를 중심으로 한국 식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미그룹 내달 영화 상영회 연다

11~12일, 민병훈 감독의 ‘약속’

한미그룹이 오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서울 송파구방이동한미 C&C 스퀘어 멀티홀에서 임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회’를 무료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회 진행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상영 작품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인 민병훈 감독의 약속(사진)이다. 이 영화는 엄마를 떠나보낸 한 아이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다. 민병훈 감독과 그의 아들 민시우군이 직접 출연해 가족 상실을 마주한 부자의 시간을 진솔하게 기록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기억은 지워질 수 있지만, 삶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영화 핵심 메시지가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에 대한 희망을 전달한다”며 “이는 한미 경영 가치인 ‘인간존중’, ‘가치창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메트로 한줄뉴스



▲“이란 실패 만회?”...트럼프, 對쿠바 군사행동 감행하나
▲재경부, IDB 연례협의 개최...“AI 허브로 중남미 협력 확대” /사진 뉴스스

▲“패권주의·일방적 강압 반대”...중리, 美겨냥 다국질서 구축 강조
▲中, 대만 무기판매 압박...“美 국방차관 방중 승인 보류”

▲중·러, 北과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3차 협의키로
▲日, AI·반도체 국제표준 선점 나선다...17개 분야 집중 육성



스타벅스 '탱크데이' 역풍에 밌 마케팅 경계령 L1



Life

올리브영 첫 매장 연다 세계 공략 본격화 L2



둘레길 숲 향기 따라, 청정 물길 따라... 발길 이끄는 생태정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검단신도시 총 856가구 수세권 단지 자연·사람 함께 호흡하는 공원형 조경

단지중앙 물길 이어지는 수경시설 조성 김경민 작가 '행복한 기억', 생기 더해

통창 가든하우스서 파노라마 조경 감상 깊은 숲속 산책길 재현한 외곽 둘레길 자연석과 소나무 배치한 자연형연못 푸른색 물방울 형상화한 조형작품도



1 단지 내 물길 따라 이어지는 중앙 수경시설. 2 가든하우스에서 바라본 수경시설. 3 어호선 작가의 '워터 컬럼(Water Column)-꿈꾸다'

최근 호수공원과 수변 조망, 산책로 등을 갖춘 이른바 '수(水)세권' 단지가 새로운 주거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계획형 신도시에서는 교통 접근성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단지 안팎의 공원과 녹지 공간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호반건설이 시공해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역시 수세권 단지다. 인천 서북부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는 검단신도시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계양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면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에 다다른다. 지난해 연장 개통한 역

주변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신축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올라가며 신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역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 아파트가 보인다. 단지 인근 생활 인프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에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추진 중이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니 동마다 계단과 함께 완만한 경사가로 설치돼 있었다. 유모차나 카트를 끌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 동 출입구는 높은 층고와 넓은 개방감을 확보했다. 밝은 화강석 마감재가 입구 전면면을 감싸며 묵직하면서도 정돈된 분위기를 낸다.

단지 중앙부에는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대규모 수경시설이 마련돼 있다. 먼저 자전거 타는 가족을 형상화한 김경민 작가의 작품 '행복한 기억'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서로 다른 자세로 자전거를 타며 유쾌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단지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곡선형 흰색 구조물 역시 공원 한가운데 야외 전시장 같은 느낌을 준다.

여러 갈래로 뻗은 수로에서는 분수가 시원

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수경시설 주변으로는 키 큰 수목이 둘러서 있어 도심 속 정원 분위기를 만든다. 물소리와 초록빛 조경이 어우러져 차분한 휴식 공간을 완성한다. 단지 중앙의 '가든 하우스'는 통창 구조로 설계해 조경시설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주민들은 실내 소파나 야외 의자에 앉아 물소리를 듣고 산들바람을 느낄 수 있다.

단지 곳곳에는 지하 커뮤니티센터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다. 지하로 내려가면 실내 골프연습장과 주민 편의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전반적인 단지 분위기와는 색다르게 꾸며졌다. 마치 작은 단독 건축물처럼 지어진 모습이다. 이 단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외곽에 자리한 둘레길이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곡선 형태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낮은 관목들이 길 주변을 채우고 있어 마치 깊은 숲속 산책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씨에는 산책로를 감싸는 초록빛이 더 선명하다. 입주주민들은 이 길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러닝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단지 내부를 연결하는 곳곳의 산책로와 수경시설은 단지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생태 공간도 만날 수 있다. 옥생비오톱 공간에는 분홍빛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에는 나무 토막과 돌무더기를 쌓아 동물과 곤충들의 서식지로 조성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숨겨진 생태 정원이다.

자연형 연못을 구현한 수생비오톱 공간도 보인다. 크고 작은 자연석들이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돼 있고 중앙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잔잔한 수면 위로 퍼져나간다. 작은 자연계곡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새들이 잠시 내려앉을 수 있도록 나무 기둥 형태의 막대도 세워져 있다.



특히 연못 위로 길게 몸을 비틀며 뻗은 소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쪽으로 굽은 수형이 물가 풍경과 어우러지며 동양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푸른색의 대형 조형물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어호선 작가의 '워터 컬럼(Water Column)-꿈꾸다'라는 작품으로, 물방울이 위로 피어오르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다. 세 갈래의 커다란 물줄기가 하나로 모여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상부의 조형물은 언뜻 보면 단순한 패턴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꿈'이라는 글자가 촘촘하게 얹혀 있다. 작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용접해 만든 작품이다.

테마파크 처럼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도 있다. 오두막 형태의 놀이시설이 작은 숲속 마을을 연상시킨다. 특히 공중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케이블웨이(cableway) 놀이기구는 아이들이 줄에 매달린 채 양쪽을 오가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4 단지 외곽에 마련된 숲속 둘레길. 5 자연형 연못을 구현한 수생비오톱 공간.

/성채리 인턴기자



▲'1세대 연극 스타' 故 윤석화에 문체부, 은관문 화훈장 추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반가사유상 요판화로 제작... 1750장 한정판 /사진 뉴스시스

▲김혜성, 샌디에이고전 4타수 1안타...오타니, 5이닝 무실점·시즌 8호포
▲키움, 김태완 코치 사임에 보직 개편...이용규, 1군 타격 맡는다

▲베리오스,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MLB 토론토 마운드 '비상'
▲JTBC, 북중미 월드컵 중계 사할...“최고 중계진으로 현장 전달”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공식 = AI + BIO

LG의 AI·BIO 융합기술은 암,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질병의 정밀진단과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시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